Uijeongbu Art & Culture

의정부예술

문화를 드리우고 예술을 피워내는 의정부예총

Vol.02

CONTENTS 2020 ART & CULTURE

권두칼럼
- 의정부예총 조직도 ····· 03
- 의정부예총회장 권두칼럼 ····· 04
- 편집위원장 여는 글 ····· 06

주요사업
- 의정부예총 회장 선거 ····· 10
- 의정부시예술단체보조사업평가지표 ····· 11
- 의정부예총 증축 및 리모델링 사업 ····· 16
- 업무협약 ····· 18

협회별이야기
- 국악 ····· 22
- 무용 ····· 24
- 문인 ····· 26
- 미술 ····· 28
- 사진 ····· 30
- 연극 ····· 32
- 연예 ····· 34
- 영화 ····· 36
- 음악 ····· 38

의정부문화예술
- 의정부문화재단 ····· 42
- 의정부문화원 ····· 46
- 의정부미술도서관 ····· 48
- 백영수미술관 ····· 52

기획
- 정책토론회 ····· 56
- 헤븐리보이스 ····· 64
- 기고문 ····· 66

전시부문 작품
- 문인작품 ····· 72
- 미술작품 ····· 80
- 사진작품 ····· 84

한국예총경기도연합회 의정부지회 조직도

의정부지회장
김원기

고문
류후선 [1대]

고문
이흥재 [2-4대]

고문
최명섭 [7-8대]

감사
권기문

감사
마해용

수석부회장
이미숙

부회장
유준식

부회장
김현주

사무국장	이동수
사무간사	윤유미

국악협회
지부장
이 병 예

무용협회
지부장
이 미 숙

문인협회
지부장
양 효 숙

미술협회
지부장
임 응 섭

사진협회
지부장
조 한 규

연극협회
지부장
유 준 식

연예협회
지부장
박 영 길

영화협회
지부장
이 경 윤

음악협회
지부장
김 현 주

권두칼럼

(사)한국예술문화단체총연합회
의정부지회장
김 원 기

먼저 정치인이기 전에 문화예술인의 한 사람으로서 진솔한 마음을 담아 희망과 비전을 만드는 의정부 예총 가족이 되기를 바라면서 제9대 (사)한국예술문화단체총연합회 의정부 지회장에 출마하고 당선이 되었습니다.

그동안 의정부지회가 전문예술인 단체로서 고답적이고 답습적인 면에서 탈피하지 못하고 정체돼 있는 상황이 매우 안타까운 마음이 늘 있었습니다.

아울러 문화예술의 요람이자 우리 문화예술인들의 집합체인 의정부지회에서 활동하는 예술인들의 역량과 기량을 제대로 펼치지도 못하고 있는 안타까운 상황들을 많이 보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전에 저는 의정부 문인협회 사무국장과 지부장을 역임하며, 천상병예술제 천상백일장 집행위원장 및 경기북부통일백일장 준비위원장 등을 하면서 의정부 예총에서 지역 문화 예술문화 발전을 위해 시인으로서 노력해왔습니다.

그러기에 27년이라는 역사를 가지고 있는 의정부지회라는 곳은 저한테는 늘 예술의 혼이 담긴 마음속 고향이며 한편으로는 잠재적인 슬픔으로 남아 있는 곳이었습니다.

올해 초반부터 의정부 지회장 선거가 두 번이나 부결이 되면서 많은 잡음이 발생하는 것을 보고 더더욱 마음속의 짐의 무게가 늘어가고 응어리가 쌓여가고 있던 차에 책임감 있는 예술인으로 그 짐을 같이 지고 가면서 짐을 하나씩 풀어나가야겠다는 다짐으로 출마를 하였고 당선이 되었습니다.

의정부 문화예술을 위해 투명하고 정직한 행정력으로 품격과 가치를 높이고 미래 변화를 위해 시작하는 차세대 예술인들의 길을 만들고, 기성세대 예술인들의 이미지 쇄신을 통해 시민들에게 사랑받는 의정부지회를 만들어 보고 싶습니다.

임기 동안 제가 중점적으로 추진할 내용은 지역 예술 활성화를 위해 지역 예술인의 지원을 위한 조례 재 · 개정을 통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며, 시 · 도비 매칭 사업으로 의정부시 상설야외무대(2002년 준공)와 부속시설(2003년 준공)의 노후화에 따른 리모델링(증축 등)을 시행하여 무대와 각종 설비 · 공간 등을 효율적으로 개선 · 확충하고, 시민들의 안전확보 및 경기 북부지역 최상의 야외 공연예술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특조비 10억 원의 예산을 확보하여 현재 진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의정부 예술인들을 위한 콘텐츠 개발과 지역축제 활성화 방안 마련으로 예산 확보 및 연구 용역을 통해 정기적으로 시 집행부와 소통하여 예술인들을 위한 창작 지원과 해외 교류 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평생을 문화예술인으로 살아오며 문화예술인의 자긍심과 혼을 다하여 정직하고 열정적인 일념으로 자긍심과 자존감이 있는 의정부지회로 거듭나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사람의 온기

사람의 온기는 사랑의 온기다. 사람의 밑바탕에 사랑이 있고 없고의 차이는 그야말로 엄청나다. 말의 기저에 사랑이 있으면 한 사람의 인생과 상황을 변화시킨다. 종이 한 장 차이와 천지 차이가 뭔지 드러난다. 나라면 그렇게 말하지 않았을 거라고 역지사지 사연도 제각각이다. 열 받을 일들에 민감하게 반응하지 않는 법이 다양한 채널로 열려있다.

당신의 체온은 안녕하시냐고 안부를 묻는다. 체중보다 체온을 지키기 위해 안간 힘을 쓴다. 정상 체온 범주를 벗어나 열에 들뜨고 싶지 않다. 혹시라도 무증상이면 어떡하나 싶은 걱정에 사로잡히기도 한다. 불안정한 상황으로부터 벗어나고 싶은 욕구가 감정기복처럼 출렁인다.

몸의 온기는 체온계가 재주는데 마음의 온기는 마음으로 금세 전해져 굳이 온도계가 필요 없다. 센서에 예고 없이 이상 신호처럼 불이 켜지기도 한다. 마음 상태가 언어의 온기로 가늠되기도 한다.

사람 사이의 거리유지 기간이 길어질수록 훈훈한 입담이 그립다. 어쩌다 좋아하는 사람과도 자유롭게 만날 수 없는 세상이 됐다. 불야성을 이루던 도시들이 인적 없는 어둠 속에 잠겼다. 그 많던 카페들이 텅 빈 가슴을 내보인다. 옹기종기 다정하게 마주하던 의자들이 어느 순간 한쪽을 향하더니 그마저 치웠다. 수다스런 입술들이 마스크 안에서 잠든 채 멍한 눈빛으로 먼 산 바라보기 일쑤다.

여느 때보다 사람의 온기가 그리운 시절이다. 사람들이 난로를 둘러싸며 모여들 듯 사람의 온기를 찾아다닌다. 휴먼 드라마나 영화를 통해 대리만족한다. 현실과 가상현실 사이를 오가며 순간의 고통을 잊으려 한다. 집콕이나 방콕의 시간이 밀도 있게 흐르길 갈망하며 파고든다.

대외적인 활동이 중단된 상황에서 뭘 하면 좋을지 방향 설정한다. 문예창작콘텐츠학과에 이끌리고 새삼 공부가 하고 싶다. 줌(Zoom)을 통해 대학원 면접을 보면서 사람의 온기가 느껴지도록 애썼다. 모처럼 립스틱 바르고 귀걸이까지 했더니 기분전환이 됐다. 화면을 통해 면접관의 마스크가 불룩거리는 게 보였다. 긴장된 분위기를 웃음이 바꿔놓는다.

사람을 향한 예술의 문은 다양하게 열려있다. 문화예술의 콘텐츠에도 변화의 바람이 분다. 사람으로서 어떻게 살아야할지 보여주고 느끼게 해주는

매체 넘나들기로 거듭난다. 다양한 예술적 감각이 충돌하기보다는 어우러져 역량을 발휘한다. 사람은 문화예술로 살아 숨 쉬는 순간 사는 맛이 달라진다.

집 밖을 나서는 자체가 모험처럼 다가오는 비대면 언택트 시대다. 서로 경계의 눈빛을 교환하는 게 보인다. 사람이 사람을 두려워하는 세상이 낯설면서도 익숙해진다. 모두가 예민한 지금 가슴 따뜻한 이와 마주하고 싶다. 비록 따뜻한 차 한 잔 같이 하지 못할지라도 이상하게 변한 일상 범주로부터 따뜻함은 더 빛난다.

사람의 온기는 사람에게서만 느껴지는 게 아니라 예술작품을 통해서도 느껴진다. 보이지 않는 다양한 가림막들을 거둬내고 회복시키는 역할이 문화예술인들에게 주어졌다.

사람의 온기가 의정부 예술지에서도 묻어난다. 문화예술의 심지에 불을 켜고 불꽃이 타오르는 걸 지켜보고 지켜내야 한다. 사랑의 불꽃으로 그 온도가 따뜻하게 감지된다. 누군가 36.5도 정상 범위라고 말하는 게 들린다.

편집위원장 **양 효 숙**

의정부예총

2020의정부예총 주요행사

의정부예총 회장 선거

의정부시예술단체보조사업 평가지표

의정부예총 증축 및 리모델링 사업

의정부예총 업무협약

제9대 의정부예총 지회장 선거

2020년 제26차 정기총회를 맞아 (사)한국예총의정부지부 임원선거 "제9대 지회장 재선거"에 김원기(문인협회 정회원, 경기도의회 부의장, 3선)후보가 4월 21일 재선거에 단독 출마하여 5월 12일 투표결과 당선되었다.

1. 선거관리위원회 회의
2. 투표장 전경
3. 김원기 지회장 투표
4. 김원기 지회장 당선증 수여
5. 김원기 지회장 당선 단체사진

의정부시 예술단체 보조사업 평가지표

1. 평가목적

· 지원의 효과성 확보

- 본 평가지표의 목적은 지방보조금을 통한 보조사업의 목적을 효과적으로 달성하기 위하여 합리적 · 객관적이고 지속가능한 장치 마련
-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평가지표를 통해 사업의 수행 및 결과에 대한 지원의 효과성을 높이며, 예술단체의 보조사업이 추구하는 일련의 목적 달성을 조력하기 위한 배경 구축
- 평가지표를 통해 예술단체 보조사업의 시행과정과 결과를 평가하여 지원의 효과를 높이고, 측정된 결과에 따른 합당한 근거로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조치하는 도구로 활용
- 본 평가지표의 최종적인 개발방향은 예술단체 보조사업의 달성 수준을 평가하고, 보조금 집행의 투명성을 통해 지역 예술단체 보조사업의 발전 도모

· 지원의 효율성 제고

- 보조사업의 목적 달성을 위한 행위나 의지 등의 계획과 역량이 부족한 상황이 각 예술단체에서 문제가 발생한다면 보조금 지원의 효율성 확보에 문제 가능성 발생
- 위와 같은 배경의 예술단체가 존재한다면 보조금 지원 효율성 문제가 제기될 수 있으므로 평가지표를 통한 평가과정에서 문제 발견 시 이를 인식하고 일련의 조치를 취하는 것은 공적 자금 투입에 있어 정당성과 연결되는 사항
- 합리적이며 객관적인 평가지표를 통해 관련 예술단체를 평가할 수 있도록 지표를 구축하며, 해당 과정에서 각 예술단체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는 단계를 거쳐 예측하지 못한 요인으로 인한 평가지표 구축에서 문제점 발생 최소화
- 예술단체의 보조사업이 보조금 지원을 통해 목적 달성 가능하거나 충분한 역량을 보유하고 있는 대상에 지원의 무게를 두어 적용

1. 평가지표 회의(1차)
2. 평가지표 중간보고회(2차)
3. 평가지표 최종보고회

1

2

3

2. 평가방향

· 성과평가
- 보조사업의 목적 달성여부를 평가하기 위하여 성과에 중심을 두며, 정량적 성과는 물론, 정성적인 성과를 고려할 필요가 있음

· 계획과 집행평가
- 사업성과가 부진하다면 원인이나 배경을 인지할 수 있는 지표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며, 사업의 계획이나 수행과정을 검토하여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계획과 집행이 적절하게 작용하였는지 평가할 필요가 있고, 미미한 성과를 얻은 사항을 극복하여 성과를 획득하기 위한 노력 요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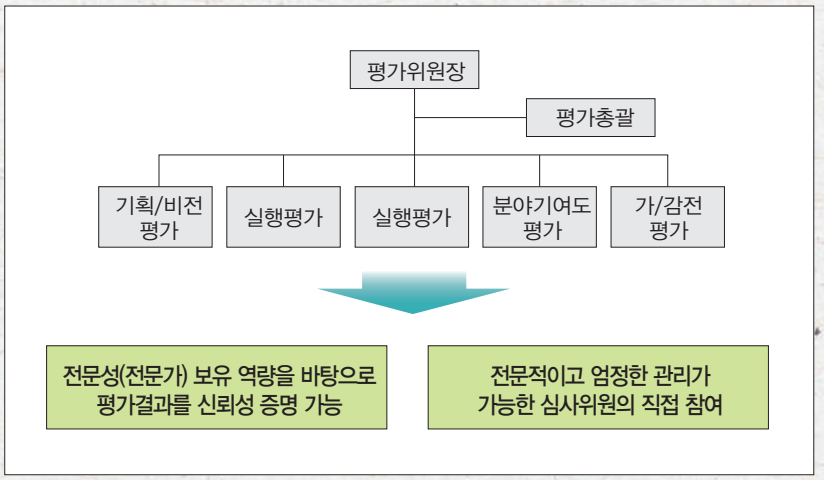
· 자체평가
- 사업 수행 후에 자체 평가를 통해 부족한 사항 개선을 위한 노력의 진행 유무를 지표에 반영하여 확인할 필요가 있으며, 목적 달성이 사업의 특색 혹은 환경과 상이함에 따라 자체 평가를 도입하여 성과를 얻기 위한 반복적인 노력 진행
- 평가지표 개발을 위해 위와 같은 사항이 고려되었을 때, 보조금 지원의 효과성 및 효율성을 위한 근거가 확보될 것이며, 평가지표에 근거한 평가 이후에는 환류를 통하여 부적절한 대상을 조치하거나 지원방식의 조정 등의 방법으로 평가의 목적 달성

3. 평가 주체

· 평가 주체의 선정에 따라 평가결과 신뢰성은 달리질 수 있는 특징이 있으며, 본연구에서는 지원주체와 외부 전문기관 의뢰 등 두 가지 안으로 검토

· 지원주체
- 의정부시 문화관광과에서 평가단을 구성하여 평가의 전 과정을 관리할 수 있으며, 외부 전문가에 의한 평가가 진행되며, 관할 부서에서는 과정 관리를 담당하게 됨에 있어 평가의 전문성 혹은 객관성 확보와 관련하여 문제 소지 발생 가능성 낮음
- 평가결과가 낮게 측정된 단체에서 지원주체의 평가에 대해 신뢰성 문제 제기 가능성이 있으며, 이와 같은 이유로 문제 발생 시 해당 평가를 외부 전문기관에 의뢰

· 외부 전문기관(전문가)
- 각 평가 영역에 전문성을 보유한 인원을 편성하여 평가결과에 신뢰성을 증명할 수 있는 인원을 우선으로 지명
- 평가과정에서 전문적이고 엄정한 관리가 가능한 심사위원의 직접 참여 여부를 중요성으로 고려하여 진행



4. 평가방식

· 지원 대상 단체와 해당 지자체 간 상호 평가, 해당분야의 전문가 평가, 단체와 이용자 평가(모니터링) 등이 대표적인 평가방식으로 활용

· 다만, 사업 평가는 객관성을 최대한 확보하기 위하여 외부위원을 위촉한 전문가 평가 방식으로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
- 평가위원은 계획, 운영, 관리, 성과 측정 분야의 전문가로 구성
- 각 지부의 조직, 회계, 공간 및 환경 등의 특성을 이해하는 전문가로 구성하여 심층적인 평가가 가능할 것으로 보임
- 효과를 향상하기 위해 적정규모의 평가위원을 구성하여 대상사업 전체를 평가하는 방식을 채택한다면 평가의 효율적인 진행 가능
- 평가의 주관성이 반영하지 않고, 합리적이며 객관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3인 이상으로 구성 하는 것이 적절

* 국고지원 공연사업 평가(예술경영지원센터) : 사업별 기본 3인
* 문화예술위원회 지원사업(한국문화관광연구원) : 세부 지원 사업 단위별 1인
* 서울문화재단 예술지원 사업평가 : 지원 사업별 3인 내외

5. 평가절차

· 서면평가, 현장평가, 관계자 평가 등으로 구분할 수 있으며 해당 과정에서 수집된 평가를 기반으로 최종평가
- 서면평가 : 사업계획과 성과가 정리된 자료를 근거로 평가
- 현장평가 : 운영 전문성, 질적 수준, 성과 등을 평가하며, 관객의 참여도(호응도) 및 만족도 측정
- 관계자 평가 : 사업을 전반적으로 담당하고 있는 책임자를 중심으로 진행하되, 실무자의 의견 역시 수렴할 필요가 있음
- 최종평가 : 평가위원 각자의 시각과 기준에 따른 편차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토론과 같은 협의를 통해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과정이 필요하며, 이에 따른 결과가 반영된 최종 평가 결정

※ 평가절차의 구분

구 분	내 용	비 고
서면평가	· 서면평가, 사업계획서, 성과보고서, 사업정산서 등 검토	· 관련 자료(문서) 제출
현장평가	· 전문평가위원에 의한 현장 실사 · 관객 참여도, 만족도 등 관객의 평가 측정	· 현장 실사 협조 · 관객 조사 · 천재지변 발생 시 제외 후 서면평가 대체
관계자 평가	· 책임자, 실무자 대상 인터뷰 진행	· 평가 의견서 및 증빙자료 (필요 시) 제출
최종평가	· 서면평가, 현장평가, 관계자 인터뷰 등을 근거로 평가위원의 토론 · 최종평가 결과물 도출	

6. 평가시기

· 사업의 계획부터 진행 및 성과, 행정적 처리 등의 사업 전 단계가 평가와 연계되며 본 평가 지표를 활용하여, 매년 상반기(1월~6월) 중 직전연도에 진행된 사업의 성과평가를 통해 차기 연도 지원여부 및 지원 금액을 결정하기 위한 절차 진행

7. 평가대상

· (사)한국예술문화단체총연합회경기도연합회 의정부지회 산하 9개 지부의 주최로 최근 3년 간 (2017년~2019년) 진행된 사업이 본 연구의 평가 대상 범위
- 국악, 무용, 문인, 미술, 사진, 연극, 연예, 영화, 음악 지부

· 본 평가지표를 적용한 평가 대상이 되는 9개 지부의 사업은 아래와 같음
- 9개 지부의 총 개최 행사 수는 59건, 총 집행금액은 504,711,223원(100.0%), 보조금 448,600,000원(88.9%), 자부담 56,111,223원(11.1%) 수준으로 나타남

※ 주요일정 진행

사전의견청취	2020. 03. 23.(월) ~ 2020. 03. 31.(화)
1차 간담회	2020. 04. 24. (금)
2차 간담회	2020. 05. 08. (금)
3차 간담회	2020. 05. 14. (목)
중간보고	2020. 05. 21. (목)
최종보고	2020. 06. 02. (화)

의정부예총 증축(리모델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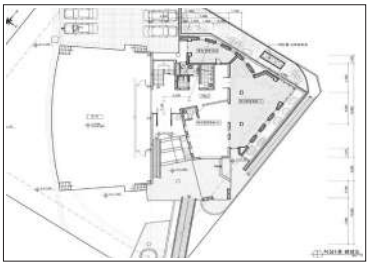
사업개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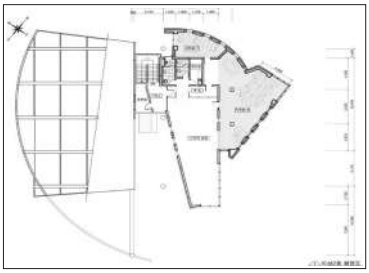
○ 위　　치 : 의정부시 의정로80번길 18
○ 사업대상 : 의정부시 상설야외무대 1개소 및 부속건물(지상 2층) 1개동
○ 사업기간 : 2019. 10. ~ 2021. 8.
○ 소요예산 : 1,067,000천원
　※ 집행액 : 67,000천원은 정밀안전점검 및 실시설계비로 집행완료
　※ 집행예정액 : 1,000,000천원은 공사비로 ’20년 특별조정교부금 확보완료
○ 사업범위 : 기존 부속건물 증축 및 리모델링, 상설야외무대 리모델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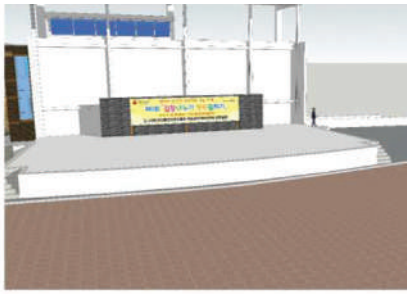
구 분			기존연면적(㎡)	변경연면적(㎡)	비 고
			578.17	**767.19**	
무대 (292.40㎡)		문화 및 집회시설(공연장)	292.40	292.40	동일
부속사 474.79㎡	1 층 225.55㎡	대기 및 분장실 1	12.57	48.95	증축
		대기 및 분장실 2	48.95	74.91	증축
		물품 보관 창고	–	20.69	증축
		홀	36.73	63.30	증축
		화장실	17.7	17.7	기존
	2 층 249.24㎡	사무실 1	13.80	20.69	증축
		사무실 2	61.95	83.31	증축
		다목적강당	30.69	81.86	증축
		탕비실 및 창고	6.8	6.8	기존
		음향실	8.1	8.1	기존
		홀 및 복도	35.84	35.84	기존
		화장실	12.64	12.64	기존

추진 사항 및 향후 계획

기 간	내 용
2019년 8월	상설야외무대 리모델링(증축) 추진 계획 수립
2020년 2월 ~ 8월	실시설계 완수, 건축협의 완료
2020년 9월	특별조정교부금 교부 및 성립전 예산 신청
2020년 11월 02일 ~ 06일	공사계약 의뢰
2020년 11월 10일 ~ 16일	나라장터 공고 및 입찰
2020년 11월 17일 ~ 20일	공사계약 및 착공
2020년 11월 20일 ~ 2021년 8월	공사 진행 및 준공 예정







업무협약

청소년 친화도시 기반조성을 위한 업무협약식

'청소년을 존중하는 의정부시'의정부시청소년재단, 청소년 친화도시 기반 조성한다.

청소년을 존중하는 사회분위기와 청소년 친화도시 기반 조성을 위해 전국 지자체 최초로 의정부시가 제정한 '청소년 행복 주간'이 눈길을 끌고 있다.

의정부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이한범)은 의정부시가 제정한 '의정부시 청소년 행복 주간'에 발맞춰 다양한 행사를 운영하고 청소년에게 특별한 혜택을 제공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올해 처음으로 제정된 청소년 행복 주간은 청소년이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는 사회 분위기와 청소년에게 친화적인 도시 조성을 위한 것이다. 특히 타 지자체는 청소년의'날'로 운영하는 것에 비해 의정부시는 청소년'주간'으로 제정하여 청소년 권익 증진을 위해 한 발 앞서나갔다는 평이다.

또한 의정부시청소년재단은 경기북부상공회의소 의정부지회, 경기북부지방변호사회, 의정부문화재단, 의정부시 중·고등학교장연합회, 의정부시민장학회, 의정부시시설관리공단, 의정부시자원봉사센터, 의정부시평생학습원, 한국예술문화단체총연합회 의정부지회 등 20개 기관·단체와 업무협약을 체결하며 민·관·공이 청소년의 권익 증진에 참여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

재단과 협약단체는 상호 협력을 통해 청소년은 한 주를 행복하게 보내고 시민은 따뜻하게 청소년을 지지하고 응원할 수 있도록 노력을 기울이기로 했다.

매년 5월 넷째 주인 청소년 행복 주간에는 진로페스티벌, 청소년 Party 등 청소년을 위한 축제와 청소년 희망 골든벨, 청소년 걷기대회 등 다양한 이벤트가 운영된다. 또한 카페, 베이커리, 네일샵, 미용실, 음식점 등 의정부 관내의 지정된 업체에서 청소년증 또는 학생증 제시를 통해 다양한 할인 혜택을 제공할 계획이다.

재단은 5월 넷째 주 일정에 맞추어 행사를 운영할 예정이었지만,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상황을 고려해 행사 개최 시기를 9월로 미뤘다.

이한범 의정부시청소년재단 대표이사는 "우리 의정부시가 전국 최초로 온전히 청소년을 위해 한 주를 청소년 행복 주간으로 제정했다."며 "미래의 주역인 청소년들이 마음껏 즐기고 끼를 펼칠 수 있는 기회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출처] [의정부포커스]의정부시청소년재단, 청소년 친화도시 기반 조성한다.

| 작성자2U-TIMES 유타임즈 이연 기자

(사)한국예술문화단체총연합회 의정부지회, 코로나19 '덕분에 챌린지' 캠페인 동참

(사)한국예술문화단체총연합회 의정부지회(지회장 김원기)는 지난 6월 29일 의정부예총에서'덕분에 챌린지'캠페인에 동참했다.

지난 23일 (재)의정부문화재단(대표이사 손경식)으로부터 지목을 받아 김원기 회장과 임원들이 의정부예총에서 코로나19 장기화로 고생하는 의료진과 방역관계자분들에 대한 고마움과 존경을 담은 수어(手語)를 취해 감사한 마음을 전했다.

김원기 회장은"코로나19 지역확산 방지를 위해 진료와 방역에 힘쓰고 있는 의료진과 방역관계자분들의 노고가 헛되지 않도록 의정부예총 시설물 방역과 사회적 거리두기 등 정부의 권고 수칙 및 캠페인에 적극적으로 동참하며, 9개 지부 예술인들 모두가 철저한 방역수칙 준수를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또한, 9개 지부(국악, 무용, 문인, 미술, 사진, 연극, 연예, 영화, 음악)의 지부장들은 예술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기 위해 비대면 무관중 랜선 전시회 및 공연 행사를 진행하는 등 코로나19 극복에 일조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다.

한편, 의정부예총은 다음 캠페인 참여자로 전통문화계승 발전과 지역문화 창조육성 및 생활문화 보급 확대를 위해 매진하고 있는'의정부문화원(윤성현 원장)을 지목했다.

(사)한국예술문화단체총연합회 의정부지회와 의정부시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업무협약 체결

– 문화예술을 통한 중독사업 활성화 방안 연대와 협력 –

(사)한국예술문화단체총연합회 의정부지회(회장 김원기)는 지난 11월 10일 의정부시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센터장 권용실)와 중독사업과 관련하여 문화예술을 통해 중독사업의 활성화 및 중독 인식개선을 위해 업무협약 체결을 했다고 밝혔다.

이날 협약식은 (사)한국예술문화단체총연합회 의정부지회에서 진행되었으며, 김원기 회장, 이미숙 수석부회장이 참석하였고, 의정부시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에서는 정혜선 팀장과 2명의 팀원이 참석하였다.

양 기관은 문화예술을 통한 중독자 생활 증진 및 심리지원을 위한 인적, 물적 자원의 개발과 연계를 목적으로 업무 협약식을 했다.

이에 김원기 회장은 "협약체결을 시작으로 중독질환자를 위한 문화예술 콘텐츠 지원 및 의정부 시민을 위한 중독예방 문화예술 콘텐츠 협력 사업을 추진하겠으며, 상호연계를 통한 중독 없는 의정부시를 만들기 위해 협력하겠다"라고 말했다

또한, 의정부시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에서는 문화예술을 통한 중독과의 연대와 협력으로 의정부 시민들이 중독을 쉽게 이해할 수 있고 중독예방과 친근해지는 기회를 마련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협회별이야기

국악협회

무용협회

문인협회

미술협회

사진작가협회

연극협회

연예예술인협회

영화인협회

음악협회

국악

한여름밤 국악의 향연
명월
주최·주관
의정부시
협회의정부지부
의정부예총
중앙뉴

한여름밤 국악의 향연
명월
2020. 08. 09 일요일
온라인 공연

한여름 밤의 국악 축제 (명월)

8월16일, 비대면 영상촬영 SNS게재

사물놀이

흔히 번개의 꽹과리, 비의 장구, 구름의 북, 바람의 징을 비유하듯 한국의 자연을 닮은 소리로 음악 놀이를 펼친다. 대삼소삼과 내고 달아 맺고 푸는 장단의 원리로 무아지경으로 빠지는 연주자와 그에 빨려 들어가는 관객의 강한 감흥을 느낄 수 있는 타악 음악의 원초적인 신명을 가진다.

경기민요

노랫가락과 창부타령은 무가에서 전승되어 전문적인 소리꾼들이 부르며 통속 민요로 자리 잡았다. 청춘가, 태평가는 신민요이며 개화기 이후 창작되어 인기를 얻은 곡으로 지금까지 불려지고있다. 뱃노래, 잦은 뱃노래는 경상도 민요로 굿거리로 시작하여 자진모리장단으로 빨라지며 메기고 받는 형식으로 주고받으며 부르는 흥겨운 곡이다.

동초 수건춤

우리민족의 특성인 한(恨)의 정서가 짙게 깔려 있으며, 맺고 풀고 어르는 묘미와 함께 고도의 절제미는 춤의 특징을 잘 나타내 주고 있다.
전라도 지방의 기방에서 기녀로부터 추어 왔으며 흥과 멋으로 섬세하고 고운 춤사위로 일명 "입춤"이라고 한다. 작은 부채를 들고 하고 하얀 손수건을 들고도 추는 것이 특징이며, 옛 기녀들의 모습을 재연한 작품이다.

제22회 정기공연 (풍년가)

11월9일, 비대면 영상촬영 SNS게재

정선아리랑 한오백년 신고산타령 궁초댕기

정선아리랑과 한오백년은 강원도 정선지방의 민요로 정선을 대표하는 메나리토리의 꽃이라고 할 수 있다.
노랫말의 내용은 남녀의 사랑 · 연정 · 이별 · 신세한탄 · 시대상 또는 세태의 풍자 등이 주조를 이루고 있다.
신고산타령과 궁초댕기는 황해도 민요를 대표하는 메나리토리로 경쾌하고 물어벅장단과 자진모리장단으로 경쾌함을 더해준다.

방아 타령 자진방아타령

대표적인 경기민요로 노동요가 아니라 창민요로 자진방아타령과 짝으로 많이 불리어 진다.
세마치장단과 자진모리장단으로 반주하며 흥겹고 경쾌하게 부르는 노래이다
소고를 들고 율동과 발릅을 넣어 더욱 경쾌함과 흥을 자아내는 공연으로 보여 진다.

사물놀이(비나리)

비나리는 사물 가락을 바탕으로 축원과 덕담을 노랫가락으로 풀어내어 자리에 함께 하는 사람들의 만액을 탈탈털어내고, 만복을 들이는 소리이다.
특별히 예술마당살판의 두 예술단원의 두가지 색을 볼 수 있는 2인2색 비나리 무대이다.

가야금 독주 (황금산의 백도라지)

황금산의 백도라지는 북한에서 창작된 21현 가야금 독주곡이다 우리민족의 민요 도라지를 개량가야금으로 다양하고 화려한 주법을 사용하여 연주하는 것이 특징이다.
또한 장단의 변화를 여러 번 주어 간단한 선율로 하여금 화려하고 신명나는 곡이다.

쟁강춤

무당들이 굿을 할 때 잡신을 몰아내고 무병장수를 기원하는 춤동작을 토대로 우리 정서에 맞게 양 손목에 방울을 끼고 부채를 들고 삼천리금수강산에 사는 우리민족의 태평성대를 기원한 작품.

무용

2020 제 29회 전국무용제 경기도예선대회 '그날의 기억'

매년 행해지는 무용인들의 가장 큰 축제이자 경연을 목적으로 한 행사인 전국무용제 전국대회를 나가기위한 경기도 예선경연대회로 이번사업은 코로나19로 인해 양평군민회관 대극장에서 3일간 무관중으로 영상을 제작해 랜선공연(경연)으로 선보여져 다른해 보다 많은 일반인들이 공유(구독)하였고 은상을 수상하였다.

슬프고도 뼈아픈 역사의 70년, 사랑하는 사람을 잃고... 가족을 잃고... 고향을 잃고...
평생 그리움을 안고 살아온 몇 안되는 실향민들의 애환과 희망을 아름다운 몸짓으로 표현하고 다시 한 번 우리의 역사를 되새기며 희망찬 미래의 꿈꾸기 위한 작품으로 선보여졌다.

그날의 기억
70년 전 그날...
혼돈의 시간과 악마의 모습 같은 전쟁은 모든 것을 앗아갔다.

꿈결같이 아름다운 사랑과 미래를 꿈꾸던 님의 멈춰버린 시간
그림자를 따라 그리움과 희망을 안고 사는 님의 흘러가는 시간

그날의 기억은...
6월의 꽃향기처럼 바람에 흩어진다.

2020년 의정부 마중물 프로젝트 '춤마중'

의정부문화재단의 지원사업인 2020의정부 마중물 프로젝트는 의정부를 대표하는 공연예술로 예술인과 일반인이 함께 소통하는 프로젝트로 상권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기획되었던 사업이었으나 코로나19로 사회적 거리두기와 집합금지명령으로 인하여 공연자는 행위를, 관객은 랜선을 통하여 문화예술을 향유하고 오프라인뿐만 아니라 온라인상의 소통으로 지역문화예술발전의 다양성에 기여하고 이를 통해 시청하는 시청자들 또한 무대공연이 아닌 보다 쉽게 접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여 접근성을 용이한 영상공연으로 제작 홍보되었다.

동초수건춤

호남살풀이춤

진주교방굿거리 춤

진도북춤

장고춤

『지역전통문화 관광자원화』를 위한

2020년 행복로 거리공연 홍보영상제작

지역전통문화 관광자원화를 위한 행복로 테마 거리 벨트조성 사업의 성공적 개최를 위해 "회룡 거리공연" 상설화로 시의 이미지제고와 볼거리 추억거리를 제공하여 관광명소 화하고자 기획된 본 사업은 2020년 코로나19로 인하여 비대면 공연인 영상으로 제작 되었다. 의정부문화원 문예극장에서 이틀에 걸쳐 태평지화무, 동초수건춤, 교방입춤, 진주교방굿거리춤을 촬영하여 이를 홍보영상으로 제작하여 우리의 전통문화예술과 의정부시의 문화예술을 온라인으로 홍보하게 되었다.

교방입춤

태평지화무

문인

2020 나의 사랑, 나의 문학

의정부문인협회 지부장
양 효 숙

지금은 우리 안에 내재 된 인문학적 감각과 문학성을 이끌어내기 좋은 때다. 비대면 언택트 시대에 혼자만의 시간이 늘었어도 불안하지 않고 오히려 즐긴다. 혼자서도 잘 지내는 기회로 여기며 홀로서기에 집중한다.

문학과 문인협회는 내게 어떤 의미일까. 문학을 위해 사람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위한 문학으로 함께 한다. 일상이 문학 아닌 게 없다. 삶을 들여다보는 게 새롭고 낯설어서 파고드는 재미가 있다. 문학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모였다는 그 자체로 의미가 생성된다.

제22회 의정부전국문학공모전을 예년과 다르게 진행했다. 공모전 작품을 분과별로 모여 심사하지 않고 작품 파일을 개인별로 열어가며 했다. 대면과 비대면 심사 경험에 대한 목소리가 다양하게 들린다. 수상자들의 감회도 저마다 다르게 체감됐다. 글을 써서 처음 응모했는데 수상까지 하게 될 줄 몰랐다며 수상소감을 이어간다. 연세 있으신 할머니 목소리에서 생기가 묻어난다.

의정부문인협회 14대 지부장이 돼 내세운 캐치프레이즈는 '작품창작이 왕성한 해'였다. 작가는 작품으로 모든 것을 보여주기에 등단하고 멈춰 있으면 안 된다. 등단은 운전면허증과 같아서 본격적으로 글을 쓰라는 것처럼 다가온다. 저서가 있어야 한다는 생각에 첫 수필집을 냈다.

월례회에「나의 사랑, 나의 문학」코너를 만들었다. 자기만의 문학세계를 돌아보고 문학적 역량의 넓이와 깊이도 가늠한다. 운문분과와 산문분과에서 한 명씩 돌아가며 문학 강연이 바통터치 됐다. 신성수 시인 · 구서휘 수필가 · 김선용 시인 · 전 영 수필가 · 이지향 시인까지 하고 멈췄다. 코로나19 신종 바이러스 눈치 보며 숨죽인 채 살고 있어도 글 쓰는 욕구는 더 왕성하다.

연간지 『의정부문학29집』도 출간됐다. 출판기념회도 비대면 형식으로 진행된다. 여느 해보다 문협 회원들 책 출간이 풍성했다. 『의정부문학29집』 책 날개에 소개하며 축하한다. 신앙에세이집과 수필집, 시집과 자기계발서 등 다양하게 장르를 넘나든다. 힘든 시기에 문학이 주는 위로가 크다. 무엇보다도 위기를 기회로 이끌어내서 더 눈부시다.

출간소식

1 이숙경 신앙 에세이집『대한민국에서 교인으로 살아가기』
엠오디 / 2020. 5. 15. / 값 15,000원

내 인생에서 가장 많은 시간을 보낸 곳은 교회다. 대한민국에서 교인으로 살아가기는 기독교인으로 사는 것과 좀 다르다. -〈작가의 말〉 중에서

2 양효숙 수필집 『뽀족구두를 벗은 초록여우』
詩와에세이/ 2020. 6. 30. 값 15,000원

인간미 있는 맨얼굴과 진정성 있는 벗은 발에 시선이 머문다.
나의 뽀족구두와 초록여우의 안녕을 묻는다. -〈작가의 말〉 중에서

3 최수희 수필집 『그냥 저냥』
인사이트브리즈 / 2020. 7. 20. / 값 12,000원

머리가 하얀 할미꽃이 되어 내 고향에 흐르는 영월 동강 언덕에 피어나고 싶다.
그냥 저냥 흘러온 것이 모두 다 경이롭기만 하다.
-〈첫머리에〉 중에서

4 이숙경 산문집 『바람의 신부와 치즈케이크』
엠오디 / 2020. 8. 31. / 값 15,000원

울면서 쓴 글을 웃으며 읽을 수 있게 하는 작가의 힘은 어디에서 오는 것일까. 작가의 사유의 힘이고 문장의 힘이고 세월의 힘일 것이다. -〈책 소개〉 중에서

5 이지향 시집 『피카소 풍경』
I&BOOK' S / 2020. 9. 10. / 값 10,000원

이번 시집은 순전히 달님의 추천으로 세상에 나왔으므로, 나의 책임에는 비루하지만 면피를 줄까 한다.
-〈프롤로그〉 중에서

6 이지향 자기계발서 『나는 이렇게 글을 짓는다』
씨앤지북스 / 2020. 11. 27. / 값 17,000원

이 책은 자기계발서란 이름을 달고 세상에 나왔지만 엄밀히 따진다면 퓨전서가 되겠고 밥으로 치면 잡탕밥 같은 책이 되겠습니다. -〈작가의 리뷰〉 중에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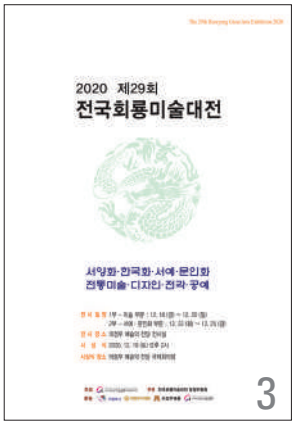
미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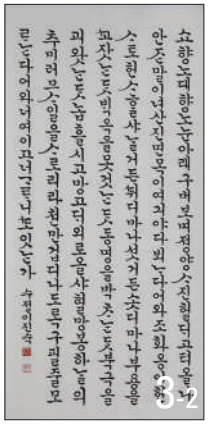
2020 공공미술프로젝트 – 우리동네미술 백석천 벽화사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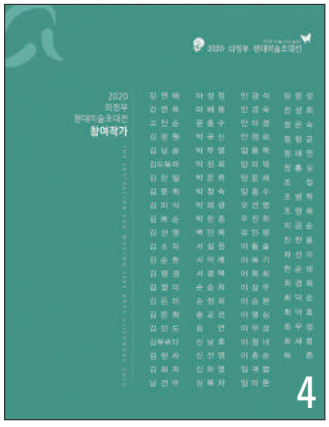
2016친환경생태하천 복원사업으로 모습을 드러낸 백석천은 어느덧 시민들의 산책로로 자리매김했습니다. 이에 시민들의 정서함양을 돕기 위해 기존의 어둡고 딱딱한 콘크리트벽면을 다채로운 그림으로 입히기로 하였습니다. 이에 2020공공미술프로젝트 우리동네미술 백석천벽화사업을 의정부문화재단 공모로 의미파인아트협회 임응섭대표와 36명의 전문작가들과 함께 과거, 현재, 미래라는 주제로 시행하여 시민들에게 특별한 경험을 제공하고 삶의 질 향상함은 물론 의정부를 이해하는 공간으로 조성하여 시민들의 품으로 다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주최 : 문화체육관광부, 경기도
주관 : 의정부시, 의정부문화재단
시행사 : 의미파인아트협회

올해의 작가 기획초대전
사)한국미술협회 의정부지부 소속작가들과







1. 올해의작가 기획초대전

의정부문화재단 올해의 작가 기획초대전은 사)한국미술협회 의정부지부 소속작가들과 협업으로 서양화에 박태광, 조각에 박한흥, 민화에 강연옥 3가지 장르를 통해 3인3색3각이라는 타이틀로 펼쳐졌습니다.

2. PAMAF전2020

3. 제29회전국회룡미술대전

제29회를 맞이하는 전국회룡미술대전은 신진작가들의 등용문으로 경기북부지역을 대표하는 공모전이다. 서양화, 한국화, 전통미술, 공예,디자인, 서예, 문인화, 캘리그라피, 전각 등 다양한 분야로 전국에서 작품이 출품됨은 전국회룡미술대전의 위상을 알 수 있다. 올해는 코로나19로 인해 온라인 전시함은 아쉬운 점이다.

주최/주관 :사)한국미술협회의정부지부
후원 :의정부시/의정부시의회/의정부예총

3-1. 미술부문 대상 : 서양화 이황주-Vanitas 2020(모든것이 헛되도다)
3-2. 서예/문인화부문 대상 : 이진숙-관동별곡

4. 2020 의정부 현대미술초대전

5. 임응섭지부장 의정부시 문화상 수상

10월6일 제33회 의정부시 문화상 심사를 거쳐 선정된 총5명의 수상자에게 의정부시 문화상을 시상했다.
수상자는 학술, 교육에 김형두 대한노인회의정부시회지회장 /문화, 예술부문에 임응섭 사)한국미술협회의정부지부 지부장/ 체육진흥부문에 이훈옥 가능동 주민자치위원회위원장/ 봉사 및 효행부문에 조상권 법사랑위원 의정부지구협의회 회장/ 지역발전부문에 이국재 바르게살기운동의정부시 협의회 회장이다. 시상식은 매년 시민의날 기념식에서 시상하여 왔으나 코로나19 여파로 인해 행사를 취소하고 시장실에서 개최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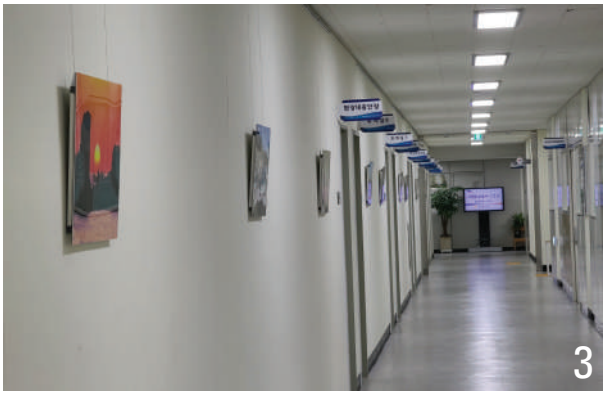
사진

제25회 사)한국사진작가협회 의정부지부 회원전

일 시 : 10월8일 ~ 11월2일
장 소 : 소방재난본부 3층 로비

1

2


3

4

5

6

1.
제25회 회원전 도록표지

2. 3. 4. 5.
제25회 의정부사진작가협회 회원전

6.
사)의정부사진작가협회 회원
단체사진

제28회 의정부 회룡전국사진공모전

전국에서500여점이 출품되어 금상1, 은상2, 가작5, 입선92점이 선정되었다.

1. 제28회 회룡사진 공모전 공모요강
2–3. 제28회 회룡사진 공모전 심사
4. 금상작품 정현욱 (훈장님 오래오래 사세요)
5. 금상작가 프로필 사진

주요경력

1954.4 국립부산대학교 법과대학 졸업
2009.1 삼성테크원 주최 풍경사진공모전 대상
2010.8 진천군 주최 농다리축제공모전 대상
2012.11 강원도 주최 제16회 광광사진공모전 특선
2012.12 한국사진작가협회 정회원
2015.11 파주시 및 지부주최 제1회 전국사진공모전 동상
2016.5 매일신문사 주최 어린이 및 가족사진공모전 은상
2018.7 평강랜드 주최 홍보사진공모전 대상
2020.2 철원군 주최 철원광광사진공모전 대상

수상소감

먼저 사진 완성도에서 부족한 점이 많은 저의 작품에 높은 평가를 해주신 심사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한서당의 훈장 선생님과 제자 아이들이 한자리에 모여 훈장님의 건강을 바라는 마음에서 미소 지으며 있는 모습이 너무 보기 좋아 촬영하게 되었습니다.

어떤 상(賞)이든 상을 받는다는 것은 자신의 인생에 기념비적 성과로 영원히 남기 때문에 흐뭇하다 못해 감격 그 자체지요 하물며 최고상을 받았다면 그 감격은 더할 나위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더구나 이론으로 잘 무장한 젊은층과 섬세한 안목의 여성 작가지망생이 폭발적으로 늘어나면서 그만큼 수준도 높아졌고 경쟁도 치열해진 상황에서 이번 응모자 중 구순을 바라보는 최고령으로 생각되는 제가 금상의 주인공이 될줄은 전혀 예상 못한 결과라 지금도 꿈꾸는 기분입니다만 차분히 생각해보면 아직도 자신있게 할 수 있다는 메시지로 느껴져 더 기쁩니다.

저는 사진에 대한 매카니즘을 체계적으로 배우지 않고 시작해서 그런지 급속히 변하고 있는 사진세계의 시대적 조류에 적응하기가 벅차지만 제 나름의 철학을 갖고 열심히 하면 좋은 결과가 있으리라 믿고 있습니다.

제가 얼마나 더 활동을 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할 수 있는데 까지는 미지의 세계를 개척하고 탐구한다는 마음으로 열심히 해볼 생각입니다.
앞으로 남은여생 더욱 정진하라는 채찍의 상으로 알고 보다 더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0년 6월 20일 정현욱

연 극

원코리아페스티벌

통일을 향한 몸짓과 노래

억압과 고통 속에서 쟁취하는 자유의 몸을 표현한 퍼포먼스와 통일을 향한
우리의 마음을 노래로 띄우는 뮤지컬 갈라 쇼

효 기획공연(방자와 내기난장)

의정부지역 어르신을 위한 세미 마당극 공연

조상들의 해학과 위트와 재치가 넘치는 마당극으로 어르신들의 삶에 힐링을 선사한다.

제38회 대한민국연극제 경기도예선 의정부대표

1980년대 이산가족상봉에 관한 공연

50여 년간 헤어져 만나지 못한 이산가족에 대한 슬픔과 이런 일이 되풀이되지 않으려면 어찌해야하는지...
그리고 마지막 연출자의 고백이 무대를 압도한다.

문화예술 일제잔재 청산

내 생활속 일제 잔재를 찾아 없애는 청산마당

연 예

시민을 위한 문화축제

매년 시민과의 대면행사로 치뤄졌던 시민을 위한 문화축제는 협회 가수공연뿐만 아니라 팝스 오케스트라,그룹사운드,난타, 밸리댄스 등 볼거리 중심의 공연을 위주로 해왔으나 이번에는 코로나19로 인하여 비대면 행사로 치러지는 관계로 인원이 많이 함께하는 행사는 배제되고 한 사람씩 노래하는 공연으로 대신했다.

1

2

3

4

1. 2. 3. 4. 5.
시민을 위한 문화축제

1. 가수 송민수 2. 가수 임지민 3. 가수 한아름
4. 가수 강소라 5. 가수 오기덕

6. 7. 8. 9. 10. 11. [연예협회 회원 이모저모]

6. 노병재(방송녹화쇼쇼쇼)
7. 송유나(월미도)
8. 신비(양평천년시장)
9. 이지연(장흥미술관 버스킹)
10. 최정(효사랑공연)
11. 종희(장흥미술관 버스킹)

12. 13. [정례회]

12. 5월 정례회 13. 1월 정례회(신년회)

5

6

7

8

9

13

12

11

10

제12회 신세대가요제

신세대들의 꿈과 열정으로 펼치는 가요제로써 의정부지역에 거주하는 신세대들에게 의정부를 알리고 세계적인 스타로 나가게 해 줄 발판이 되어주는 가요제 이다.
올해는 코로나19로 인하여 참가자들이 보내온 영상을 심사하여 대회를 치렀으며 이 모든 과정을 영상 제작하여 유튜브등 SNS에 게재하였다.

나눔행사

(사)의정부 연예협회 박영길 회장께서는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회원들을 위해 쌀 1인1포대씩 350kg을 전달했으며 새해를 맞이하여서는 가래떡을 증정하였다.

1. 2.
신세대가요제 심사

3.
신세대가요제 사회

4.
신세대가요제 대상–임유진

5.
쌀증정

6.
가래떡증정

영 화

만추의 밤 영화

초대합니다. 의정부 영화인 협회에서는 화려한 무대와
아름다운 노래로 펼쳐지는 미국영화 "사랑은 비를 타고" 를
선택하였사오니 많은 영화감상 부탁드립니다.

축하공연 (오후5시 무관중 공연/유튜브 촬영)

모델 M.C 이애경

팝가수 프레스리

가수 강소라

가수 최정

가수 여주리

가수 김호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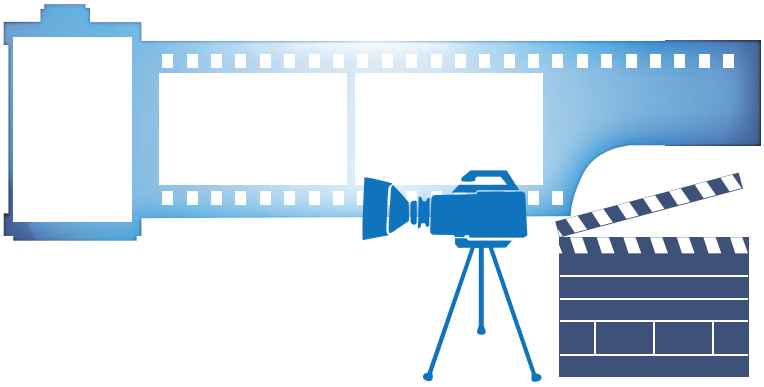
전국노래자랑 최우수상

품바 한심해

일시 : 2020년 10월 17일 토요일

장소 : 의정부로 좋은친구 스튜디오

주최·주관 – 의정부영화인협회 / 후원– 의정부시,의정부예총,의정부연예인협회



영화감독협회
이경윤 감독

SINGIN'
IN THE RAIN

음악

음악협회 이야기

한국음악협회 의정부지부는 1993년 한국음악협회로부터 설치기준에 근거하여 인준을 받았습니다. 의정부음악협회는 전문음악인들의 음악단체로서 의정부지역의 클래식 공연의 저변확대를 위하여 다양한 음악기획 및 공연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역의 많은 음악단체들의 다양한 음악프로그램과 공연 등으로 지역발전 및 문화예술 발전에 커다란 주축이 되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2020 찾아가는 행복배달 음악회

〈2020 찾아가는 행복배달 음악회〉는 음악협회 개인회원과 소그룹 단체 또는 합창단들이 음악적으로 소외된 지역이나 단체 및 기관을 직접 찾아가서 음악으로 함께 소통하고 공감하는 자리입니다.

올해는 단체7개 팀과 16명의 개인이 참여하여 지역과 연령 및 빈부의 차등 없이 모든 시민들이 폭넓게 문화활동을 향유하였으며, 관심과 참여도를 높여 보다 밝고 활기찬 지역문화를 만들어 가는데 한 모퉁이를 담당했습니다.

[참여 단체명]
예인챔버오케스트라 / 의정부 윈드오케스트라 / 프라임 앙상블 / 트리오 끌림 / 필챔버오케스트라 / 프렌즈 싱어즈 / 유스챔버오케스트라

[개인 참여자]
김예진 / 조매란 / 김성신 / 황승찬 / 오현영 / 김현주 / 한마루 / 반호성 / 강은미 / 김송연 / 원시은 / 임예인 / 권재연 / 최은주 / 최두리 / 신미희

2020 기전(畿甸)음악제 〈의정부 가곡으로의 초대〉

한국가곡 100주년을 기념하여 의정부시 음악협회가 '2020 기전음악제' 의 다섯 번째 음악회 〈의정부 가곡으로의 초대〉 를 카페 파크프리베 야외 광장에서 진행하였습니다.

10월의 끝자락에 코로나19로 지쳐있는 시민들에게 우리의 아름다운 가곡을 들려드리며 따뜻한 마음으로 함께 하였으며, 그 동안 문화예술 공연에 목말랐던 시민들의 갈증을 조금이나마 풀어드리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제26회 의정부시 합창 대축제

올해 26번째를 맞이하는 의정부시 합창 대축제는 의정부에서 왕성한 활동을 펼치고 있는 합창단들이 멋진 화음을 만들어내는 자리로 매년 의정부 예술의전당 무대에서 함께 하여 왔습니다.

하지만 올해는 아쉽게도 코로나로 인해 무대에 설수 없어 다섯 개의 합창단이 비대면 영상촬영으로 진행하게 되었지만, 무대 못지않은 열정과 멋진 화음을 만들어 주셨습니다.

[참여 단체명]
의정부 기독 합창단 / 신곡실버합창단 / 의정부아가페코랄 / 해피우먼스콰이어 / 의정부혼성합창단

* 특별출연
예인사현(현악4중주), 의정부성악앙상블

의정부문화예술

의정부문화재단

의정부문화원

의정부미술도서관

백영수미술관

다양한 장르의 음악극으로 시민들과 만나다.

의정부음악극축제(집행위원장 손경식, 예술감독 최준호)가 8월7일(금)부터 16일(일)까지 의정부예술의전당과 주변 일대에서 〈GAZE–서로의 시선〉으로 다양한 장르의 음악극으로 선보인다.

이번 축제 주제 〈GAZE-서로의 시선〉은 포용과 배려, 다양성의 가치를 추구하는 열린 축제의 의미를 담아 음악극은 물론 마임, 무용, 전통예술 등 복합장르에 이르는 이채로운 문화예술 프로그램으로 시민들과 함께하고자 한다. 의정부음악극축제는 매년 해외의 우수한 작품들을 초청해 선보였으나 올해는 코로나19로 국내 공연팀들의 무대를 중심으로 의정부예술의전당 대극장과 소극장 그리고 의정부아트캠프와 전당 일대의 모든 공간을 공연장으로 활용해 지역예술 단체들까지 함께하는 축제이다.

축제의 첫 문을 여는 〈멜리에스 일루션 : 달에 도착〉은 2016년 두산인문극장과 페스티벌 봄 시즌 개막작으로 두산아트센터와 페스티벌 봄이 공동 기획 · 제작한 〈멜리에스 일루션-에피소드〉를 발전시킨 작품이다. 영화에 '픽션'을 본격적으로 도입한 인물이자 최초의 공상과학 영화인 '달세계 여행'을 만든 조르주 멜리에스의 환영과 환상, 착각과 착시 등 그의 일루션을 담은 것으로, 미디어의 경계가 허물어진 '트랜스미디어' 시대에 피동적인 수용자에서 능동적인 생

산자로 전환되는 시선과 태도에 그리고 방향에 초점을 둔 프로젝트이다. 작가 EG는 "이 작품은 일종의 보는 것과 보여 지는 것, 그리고 움직임에 관한 이야기로, 정해져 있는 과거의 재현이 아닌 서로 다른 시간의 분절된 개체들이 각자의 해석에 의해 새롭게 탄생하는 생성의 경험에 초점을 두었다."고 설명하였다.

이어 소극장에서는 한국문화예술위원회 한국예술창작아카데미 aPD기획자과정 선정작으로 처음 개발되어 2019 경기문화재단 공연예술창작 지원사업으로 초연, 유료객석 점유율 90%로 관객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어 2019 경기공연예술페스타 베스트 컬렉션에 선정된 음악극〈게임회사 중창단〉이 공연한다. 게임회사를 배경으로 어렸을 적 한 번씩은 해봤을 추억의 게임, 카트라이더부터 남극 탐험까지 누구나 들으면 알만한 '게임 음악'을 중창으로 편곡해 게임이란 소재로 직장인들의 애환을 유쾌하게 풀어냈다. 연출자 손님은 "우리의 삶은 전혀 조화롭지 않은 것에서 조화를 찾고, 우리의 계획과는 다르게 생각지도 못한 결과들이 생겨난다. 그게 우리가 사는 이야기가 아닌가 싶다."라며 연출 의도를 밝혔다.

축제 두 번째 주간에는 언어의 한계를 뛰어넘으며 멀티미디어와 연극적 상상력, 그리고 어린이의 익살스러운 놀이가 결합한 혁신적인 공연이라는 평가를 받는 브러쉬 씨어터의 기발하고 즐거운 낙서의 향연 〈두들팝〉은 이번 여름방학을 맞아 온 가족이 함께 즐길 수 있는 시간을 만들어 준다. 상상력이 이끄는 대로, 작은 방에서 바닷가로, 바닷가에서 섬으로, 다시 바닷속 해저로 휙휙 날

1. 게임회사 중창단
2. 광대가 리골레토
3. 이희문과 프렐류드
4. 스카이밴드

1

2

3

4

1.
야외공연
Welcome to 의정부

2.
야외공연
Welcome to 의정부

3.
오순도순 국악콘서트
미술도서관

4.
열린전시 프로젝트

아다니는 부기와 우기가 펼치는 무한한 꿈의 세계로 상상력을 자극한다.
새로운 융합 예술의 시작이 될 〈이희문과 프렐류드X잠비나이XVOMLab〉의 이색적이고 폭발적인 무대가 의정부예술의전당 대극장에서 펼쳐진다. 장르 간 경계를 넘나들며 전통소리와 재즈, 포스트 록의 사운드와 미디어아트가 만나는 이번 무대는 여러 프로젝트를 통해 전통 음악의 새로운 해석으로 경기소리를 풀어내고 있는 이희문 컴퍼니의 '한국 남자'와 세계 각지에서 스펙트럼 넓은 무대를 누벼온 그룹 잠비나이의 독창적인 음악과 공간의 새로운 경험을 만드는 아트앤 테크놀로지 그룹 VOMLab의 첨단 기술을 융합한 역동적 공연으로 그동안의 의정부 음악극 축제에서 볼 수 없었던 새로운 시도로 색다른 경험을 선사한다.

또한, 작년 새롭게 개관한 의정부아트캠프 블랙에서는 〈도공지몽 : 도자기의 비밀〉이 방학을 맞은 어린이와 청소년들을 위해 낮에 공연한다. 어느 날 한국과 일본에서 5개의 구멍이 송송 뚫린 도자기가 동시에 발견되고 그 정체를 찾는 과정을 음악과 함께 급하고 사나운 작품이다. 공간 서리서리(대표 송경근)는 음악과 공예를 통한 다양한 예술적 창작활동을 실현하고 있는 단체로 2018년도에는 명맥이 끊긴 생소한 우리의 국악기 '훈'을 복원, 개량에 성공해 새로운 도자기 관악기 '송훈'을 선보였다. 축제 기간 의정부예술의전당 소극장 로비에서 '열린 전시 프로젝트-Mystic Bamboo' 전시도 함께 즐길 수 있다.

축제 마지막 주말, 대미를 장식할 음악극 〈카르멘〉은 명작 '카르멘'을 원작에 충실하게 극화해 비극적 사랑이 파멸에 이르는 과정을 심연주 음악감독에 의해 현대적이고 세련된 라이브 연주로 극대화했다. 자유에 대한 갈망과 비극적 사랑의 파멸을 연극과 뮤지컬에 접목해 "오페라, 뮤지컬, 영화 등 어떤 장르의 '카르멘'보다 매혹적이고 강렬하다."

라는 평을 받으며 제23회 거창국제연극제 대상 · 연출상 수상, 2019 경기문화 페스티벌 베스트 컬렉션에 선정되는 등 2010년 초연 이후 작품성은 물론 대중성까지 인정받은 작품이다. 2020 한국문화예술회관연합회가 주최하는 2020 문예회관과 함께하는 방방곡곡 문화 공감 사업 민간예술단체 우수공연사업으로 선정되어 의정부예술의전당 대극장에서 공연되었다.

그리고 베르디 최고의 명작 오페라 '리골레토'를 판소리와 정가, 민요를 기반으로 재탄생시킨 〈광대가 리골레토〉에서는 판소리와 오페라 노래와 대사의 반복 구조로 이루어져 있어 문학과 음악, 연극이 긴밀하게 결합한 종합예술로 불린다. 이러한 장르적 유사성을 바탕으로 우리 소리와 오페라가 결합한 이 작품은 판소리와 무가, 정가가 오페라와 만나 독창적인 매력으로 '소리 오페라'라는 새로운 레퍼토리를 가지고 있다.

이 밖에도 의정부예술의전당 일대 야외에서 축제 기간 다채로운 공연들을 진행하며, 여름밤 하늘 위 무대에서 〈스카이 밴드〉 콘서트를 시작으로 2019 문화기술연구 개발지원 한국콘텐츠진흥원 '단비' 사업에 선정되어 공중에서 무선으로 운영될 수 있는 트러스 모듈을 이용한 공중 연주, 조명연출, 불꽃과 특수효과 등을 하나로 엮은 퍼포먼스가 펼쳐진다. 이 외 15개의 국내 공모 참가팀과 12개의 지역 예술 단체들의 마임, 서커스, 음악, 비보잉, 케이팝 커버 퍼포먼스, 오케스트라 연주까지 다양하고 이채로운 무대들이 준비되어 있다. 이번 축제는 신종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예방 및 확산 방지를 위해 실내뿐만 아니라 야외 공연도 의정부음악극축제 홈페이지(www.umtf.or.kr)를 통한 사전예약제로 인원을 제한해 생활 속 거리 두기를 실천한다. 공연장 내 열화상 카메라 설치 및 시간대별 정기 소독과 소독용품 등을 곳곳에 비치해 모든 아티스트와 스태프, 관객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모두가 안전한 축제가 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다.

코로나19로 지친 시민들에게 문화예술로 일상을 되찾는 기회를 만들고자 티켓 가격의 장벽을 낮춘 1,000원부터 시작하는 희망티켓 등을 운영하고 있다.

(문의: 의정부음악극축제 집행위원회 031-850-5144~7)

1.
소극장로비
코아모러스(월드뮤직콘서트)

2.
축제현장

3.
축제현장

의정부 문화원

의정부문화원, 시민들의 기억을 모아 역사와 함께 기록하는 살아있는 지역사 정리 프로젝트 〈의기투합議記to合〉을 시작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코로나19의 무서운 확산에 온 국민 모두가 힘들어하고 있는 지금 어쩌면 가장 의미 있는 인사가 바로 안녕하십니까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지금 우리 모두는 무척이나 지쳐있습니다. 하지만 언제나 그렇듯이 아픔이 지나가면 더욱 단단한 의지로 현실을 극복하고 미래의 새로운 희망을 만들기 위해 우리는 용기 내어 현재를 열심히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 의정부시는 서울 북쪽의 관문이자 경기북부의 국방, 경제, 사회, 교통, 교육, 문화 등의 중심역할을 해온 명실공히 경기북부의 중심이었으며 그로인해 발전과 더불어 더 많은 희생의 무게를 감당한 도시이기도 합니다.
이러한 이유로 너무도 빠르게 발전하는 세상의 흐름에 과거는 물론 현재조차 뒤돌아볼 수 없는 현실에 치여 기록하고, 남겨야 할 소중한 기억을 정리하지 못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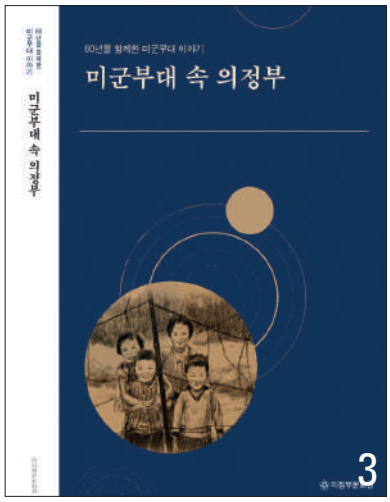
비록 많이 늦었지만 우리 의정부문화원은 더 이상 잃어버려서는 안 될 우리 삶의 기억을 찾아 정리하여 마을조사지로 그리고 구술조사지로 또는 다양한 형태의 기록으로 정리되어 새로운 시대의 눈높이에 맞는 지역사를 정립하고자 준비해왔습니다.
그러한 노력의 일환으로 2019년 봄부터 의정부 기억 찾기 프로젝트 〈의기투합議記to合〉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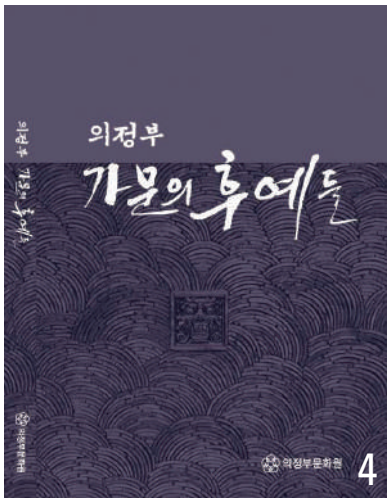
〈의기투합議記to合〉은 의정부 사람들이 기억하고 있는 의정부의 옛 모습과 현재를 다양한 시각에서 바라보고 다채로운 이야기로 기록하는 의정부문화원에서 진행하는 10년 장기 프로젝트로 이를 위해서 『의정부 마을 기초조사 사업-마을개관과 지역민의 삶』을 발간하며 〈의기투합議記to合〉 프로젝트를 시작하였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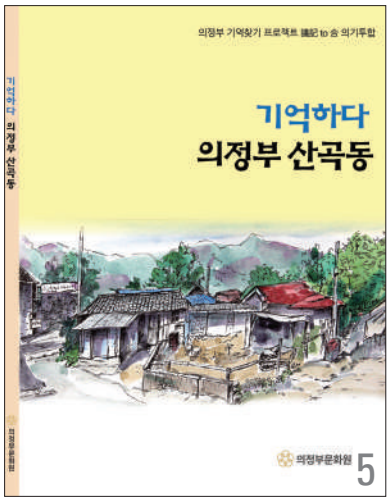
〈의기투합議記to合〉 사업의 첫 번째 이야기는 고산동의 '뺏벌 마을'입니다. 고산동에 위치한 뺏벌 마을은 이름도 없이 선산을 지키는 사람들만 살던 굉장히 작은 마을이었습니다. 작은 마을의 변화는 한국전쟁이후, 미군부대가 들어서면서 시작되었습니다. '캠프 스탠리' 미군부대를 중심으로 돈을 벌기 위해 많은 사람들이 급격히 마을에 들어오면서 기지촌이 형성되고 자연스럽게 마을규모가 커졌습니다. 규모가 커지면서 뺏벌 마을은 큰 부흥기를 보냈습니다. 이렇듯 미군부대로 인한 변화를 겪은 의정부에 대한 이야기를 담고자 〈의기투합議記to合〉프로젝트의 첫 번째 사업으로 선정하여 『헬로 뺏벌』을 발간하였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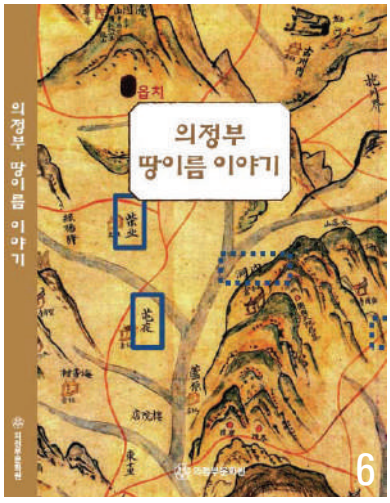
1

2









의정부문화원에서는 2019년 『의정부 마을 기초조사 사업-마을개관과 지역민의 삶』과 『헬로 뺏벌』 발간을 밑거름 삼아서 다양한 조사와 연구를 2020년에도 계속해서 진행하였으며 주요사업은 다음과 같습니다.

절대 변하지 않는 도시는 없습니다. 발전과 쇠퇴가 끝없이 반복되는 것이 바로 사람들이 살아가는 삶의 터전인 마을입니다. 그 삶의 터전이 변화하는 모습을 가장 잘 기억할 수 있는 사람은 바로 그 공간에서 함께 변화하며 생활해 온 사람들입니다. 사람들의 기억 속 의정부의 모습은 모아서 기록하지 않으면 언제든 금방 사라질 수 있습니다. 많은 분들의 기억을 모아 역사와 함께 기록으로 남겨야 합니다.

의정부문화원에서는 〈의기투합議記to合〉프로젝트를 통해 의정부의 여러 가지 모습을 찾고 정리하여 현재를 살아가는 우리들은 물론 미래에 이 고장에서 함께 숨 쉬며 살아갈 후손들에게 애향심과 자긍심이 가득한 의정부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는 바탕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의정부문화원이 진행하는 〈의기투합議記to合〉프로젝트에 많은 응원과 관심 부탁드립니다.

1. 2. 시민 마을기록자 육성사업
시민기록자 양성 교육과정을 통하여 주민의 주체적인 참여와 마을의 자치의식을 갖게 하며, 시민 조사단을 육성하고 육성된 시민 조사단은 다양한 지역사 조사사업에 참여를 통해 마을 문화의 정체성과 문화자원을 발굴하는 중요한 역할을 하였습니다.

3. 미군부대 마을 조사 사업
의정부 내 미군부대가 주둔하던 마을 주민들을 대상으로 미군부대의 유입으로 인한 주민들의 생활상 변화를 조사 · 기록하는 사업으로 『미군부대 속 의정부』 발간.

4. 의정부 구술생애사 채록 사업
의정부에서 300년 이상을 살아온 가문인 평양조씨, 원주원씨, 고령신씨, 반남박씨, 양주조씨, 전주류씨 가문을 조사하고 그 후손들의 삶 속에서 의정부 가치와 정체성을 찾아내는 기록사업으로 『의정부 가문의 후예들』 발간.

5. 사라져가는 의정부 마을조사사업
의정부의 재개발로 인해 사라져가는 마을을 선정하여 마을 주민들의 기억 속에 남아있는 마을의 과거모습부터 현재까지 생업, 신앙, 의례 등의 생활상의 변화 모습을 기록하고, 주민들이 간직하고 있는 사진, 영상 등을 수집하는 과정을 통해 마을의 기억을 보존하는 사업으로 새로운 변화를 준비하는 산곡동 마을지 『기억하다 의정부 산곡동』 발간 예정.

6. 의정부 지명유래 조사 사업
지금까지 발간되어진 의정부 지명유래와 관련된 자료를 점검하고 마을사람들의 기억과 비교해가는 과정을 통해 지명유래의 변화와 오류를 찾아내는 과정을 통해 의정부 옛 지명의 의미를 다시금 정리하고 기록하는 사업으로 『의정부 땅이름 이야기』 발간.

의정부 미술도서관

발상의 전환, 새로운 패러다임을 보여주는 의정부미술도서관

▲ 의정부미술도서관 전경

「도서관을 품은 미술관, 미술관을 품은 도서관」을 슬로건으로 한 의정부미술도서관이 작년 11월 6년 간의 준비 끝에 문을 열었다. 개관 이후 미술과 책이 융합된 새로운 패러다임의 운영으로 이미 방문자수는 13만명을 훌쩍 넘겼으며, 도서관에서 운영하고 있는 인스타그램 팔로우 수는 2,600명에 육박하였다. 개관 이후 전국 도서관과 미술관의 벤치마킹 방문이 끊이지 않는 의정부미술도서관의 새로운 시도에 대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2020년 한국건축문화대상 수상

'공간의 변화와 문화의 힘' 의정부미술도서관은 2020년 한국건축문화대상 우수상을 수상하는 성과를 거양하였다. 공간의 변화가 도서관 문화를 바꾸고 시민의 삶을 변화시킨다는 모토를 가지고 공간을 통해 책과 사람, 사람과 사람이 자유롭게 만나고 영감을 받을 수 있도록 디자인 한 결과이다. 공간의 특별함은 오픈공간의 개방성에서 극대화 된다. 모든 공간을 원형계단으로 유기적으로 연결하고, 전면 유리창을 통해 바깥의 풍경을 도서관 내부로 들였으며, 서가높이를 낮춰 답답한 느낌이 들지 않도록 하였다.

▲ 의정부미술도서관 원형 계단

공간의 변화와 더불어 특별한 장서구성도 미술도서관의 가치를 높이는 하나의 축으로 작용한다. 도서관 장서의 40%는 예술전문도서로 구성하여 미술특화도서관으로서의 전문성을 높였고, 신사실파 관련자료와 국립현대미술관과 서울시립미술관의 전시도록을 스페셜콜렉션으로 수집하여 도서관을 방문하는 일반인뿐만 아니라 전문가들에게도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자료를 수집하고 있다.

자발적인 시민들의 참여도 뜨겁다. 전시해설사인 도슨트를 시민 자원활동가로 양성하여 전시관람을 돕고, 신진 작가를 양성하는 오픈 스튜디오 운영과 미술전공자들에게 다양한 경험의 기회를 제공하는 청년문화 예술 아카데미도 문화예술분야의 인재를 양성하는 등 시민 참여를 유도하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중이다.

▲ 사이코지만 괜찮아 방영화면

공간의 매력으로 다양한 매체 촬영장소 러브콜

미술도서관 공간구성의 독창성으로 도서관 본래의 기능에 추가로 관광명소로서도 주목을 받고 있으며 드라마, 다큐멘터리, 예능프로그램 촬영장소로도 각광을 받고 있다. 얼마 전 종영한 TvN드라마'사이코지만 괜찮아'에서는 그림책 이야기를 하면서 도서관을 둘러보는 장면이 방영되어 화제가 되었고 유재석, 조세호가 진행하는 TvN 예능프로그램'유 퀴즈 온 더 블록'도 도서관의 다양한 공간에서 촬영을 진행하여 입소문을 타고 있다. 잡지와 방송 등 다양한 매체를 통한 홍보는 최신 트렌드를 반영한 의정부시의 이미지 제고에도 큰 도움이 되고 있다.

미술도서관만의 또 다른 매력, 기획전시

의정부미술도서관의 1층은'아트그라운드'로 오롯이 미술과 관련된 공간으로 운영되고 있다. 아트그라운드에서 가장 돋보이는 공간은 전시관으로 이 공간을 통해 주기적으로 기획전을 선보인다. 개관 이후 2차례의 기획전이 큰 호응을 받으며 성료 되었으며, 현재는 국립현대미술관과 협력하여 『국립현대미술관 미술은행 소장품』展을 준비하고 있다.

첫 번째 기획전은 개관기념 전시로 의정부시의 큰 자산인 백영수 화백의 작품세계를 모티브로 삼았다. 의정부미술도서관이 탄생하게 된 중요한 시작점인 백영수 화백은 1973년 의정부 도봉산 밑자락에 터를 잡고, 이후 40여년 가까이의 프랑스 생활을 마치고 한국으로 돌아와 2018년 작고할 때까지 의정부에서 작품 세계를 이어나갔다. 의정부시 호원동에 위치해 있던 그의 작업실은 현재 백영수미술관으로 운영되고 있다. 이렇듯 백영수 화백은 의정부시와 인연이 깊은 화가이자 의정부시를 대표하는 화가로 의정부미술도서관이 개관 기념 첫 전시로 백영수 화백의 그림들을 선보인 이유이다.
특히 백영수 화백은 한국근현대미술사에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신사실파 동인으로서 이중섭, 김환기, 유영국, 장욱진, 이규상과 함께 활발한 작품세계를 펼쳐왔다. 의정부미술도서관 1층 아트그라운드에는 신사실파 섹션을

▲ 개관기념 전시회 〈늘, 곁에〉

따로 마련하여 백영수 화백 전시 도록 및 신사실파 관련 자료들을 만나볼 수 있도록 하였다.

『늘, 곁에』 展은 백영수 화백의 모성을 주제로 하는 작품과 그의 작품을 보다 쉽게 이해하고 가깝게 느낄 수 있도록 작품과 연계된 그림책을 함께 전시하였다. 또한 도서관의 특장점을 살려 백영수 화백 관련 서적과 목차화를 담은 월간지, 포스터 등 아카이브 공간을 따로 마련하였고, 작품 세계를 집중 조망하는 영상 다큐멘터리도 상영하였다. 마지막으로'나에게 어머니란?'을 주제로 하는 관객 참여형 공간을 구성하여, 관람객들이 직접 참여하여 전시의 마지막 부분을 완성하도록 하였다.

텍스트, 콘텍스트가 되다

의정부미술도서관은 두 번째 기획전으로 『텍스트, 콘텍스트가 되다』 展을 운영하였다. 현재 코로나로 인하여 직접적인 전시 감상이 어려운 상황으로 SNS을 통하여 작품과 큐레이터의 한 줄 평을 소개하였다.(instagram: @artlibrary_ujb) 의정부미술도서관은 전국 최초 도서관과 미술관이 결합된 공공도서관으로, 독서와 작품 감상을 동시에 즐길 수 있는 새로운 형태의 인문학적 복합문화공간이다. 『텍스트, 콘텍스트가 되다』 展은 이러한 미술도서관만의 정체성을 형태론적으로 해석한 전시이며, 책과 미술 작품이 공존하는 곳이니만큼 시각예술 이미지에 텍스트가 결합된 작품으로 미술도서관의 정체성이 잘 드러나도록 하였다. 전시를 통하여 텍스트가 시각 이미지에 포함되었을 때 어떠한 서사를 가지게 되고, 어떻게 하나의 맥락으로 묶이게 되는지 고민해볼 수 있는 시간이었다.

전시에서는 아날로그적 '읽는' 행위에서 벗어나 시각적으로 '보는'현대의 삶을 살고 있는 만큼 텍스트라는 것은 읽어야만 하는 것에서 나아가 보고, 느끼고, 감상하는 것으로서 변모하였음을 보여준다. 작가들은 텍스트에 대한 각기 다른 의미 부여와 조형적 형태로 관람객에게 질문을 던진다. 관람객들은 상충되

▲ 〈텍스트, 콘텍스트가 되다〉 전시회

는 텍스트들 사이에서 글자와 문장에 대한 의미를 되짚어보며, 텍스트의 본질에 대하여 고민해보는 전시로 운영되었다.

국립현대미술관 소장품 전시 선정

2019년 12월 의정부미술도서관만의 전시 기획력으로 『국립현대미술관 미술은행 소장품』展에 선정되었다. 『국립현대미술관 미술은행 소장품』展이란 2014년부터 시작되어 온 사업으로 문화소외지역에 국립현대미술관 미술은행 소장품 감상의 기회를 제공하고, 지역 · 계층간 문화격차 완화를 도모하는 사업이다. 의정부시는 여태껏 시립미술관이 부재한 문화소외지역으로 한국 현대미술 대가들의 작품을 직접 관람하는 것이 상대적으로 어려웠다. 의정부미술도서관은 이러한 시민들의 문화적 목마름을 해소시키고자 시립미술관의 역할을 대체하며, 다양한 기획전과 공모 및 전시 연계 미술 교육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다. 공성훈, 김유정, 방앤리, 오세열, 윤상열, 이건용, 이영배, 정보영, 최병소, 김옥선, 정연두, 박준범, 임홍순, 정재철 등 14인의 작품을 만나볼 수 있는『국립현대미술관 미술은행 소장품』展은 오는 11월 4일부터 의정부미술도서관 1층 전시관에서 관람 가능하다.

공간의 혁신, 연결의 가치

의정부미술도서관은 기존 공부방으로서의 도서관 틀에서 벗어나 미술을 감상하고, 신진 작가와 예비 큐레이터들의 향후 방향성을 제시할 수 있는 지역 문화의 장으로 나아가고 있다. 이러한 문화적 발전과 새로운 시도들은 공간을 창출해내고 기존의 목적성에 새로운 실현성을 더하여 지역문화예술을 발전시킬 수 있는 강력한 힘이 된다. 이 힘은 결국 진정으로 미술을 즐기고, 예술을 향유하는 문화 지식인으로 시민들의 삶을 더 나은 방향으로 이끌어 나갈 것이다. 미술관을 품은 도서관, 의정부미술도서관에서 내면의 미적 충족 욕구를 일깨우고, 새로운 삶의 이면을 찾길 바란다.

백영수 미술관

2020 백영수 화백 주요전시 소개

백년을 거닐다 [백영수 1922–2018]

백영수(白榮洙, 1922–2018)는 수원 태생 작가로 김환기, 유영국, 장욱진, 이중섭 등과 함께 신사실파 동인으로 활동했고, 특유의 서정적이면서 조화로운 경향의 독자적인 작품 세계를 구축하며 평생 창작에 몰두했다. 이탈리아, 프랑스 등지에서 열린 100여 회의 전시에 참여하는 등 활발하게 활동하였다. [백년을 거닐다: 백영수 1922–2018]전시는 105점에 달하는 백영수의 작품과 함께 작가의 아틀리에를 재현한 공간 및 아카이브 섹션을 전시장에 구현하여 자유로우면서, 진지하고, 절제된 그의 예술세계를 본격적으로 조망한다. 본 전시는 작가 아틀리에와 아카이브로 구성된 1부 〈백영수의 삶을 거닐다〉와 105점의 작품이 전시된 2부 〈백영수의 작품을 거닐다〉로 구성되었다.

ⓒ 홍철기(HONG Cheolki)

ⓒ 홍철기(HONG Cheolki)

ⓒ 홍철기(HONG Cheolki)

1부 백영수의 삶을 거닐다

1부는 백영수의 삶과 창작 세계를 살펴보는 아카이브 공간이 마련되었다. 2018년 타계 이후 본격적으로 정리한 백영수 연보와 사진, 수차례 개최 및 참여했던 개인전과 단체전의 브로슈어와 도록, 실제로 그림을 그릴 때 사용하였던 미술 도구와 함께 재현된 아틀리에 등을 통해 그가 남긴 삶의 궤적을 살펴본다. 1998년 파리 아틀리에에서 촬영한 〈모성의 나무〉 (캔버스에 유채, 162x130cm, 백영수미술관 소장)와 2001년 작품 〈귀로〉(캔버스에 유채, 146x114cm, 백영수미술관 소장)를 제작하는 장면을 기록한 영상이 상영되어 작품 제작의 면면을 살펴볼 수 있다. 이와 함께 김동호(전 부산국제영화제 조직위원장), 김명애(백영수미술관장), 김윤섭(한국미술경영연구소장)이 기억하는 작가를 인터뷰 영상에 담아 백영수를 여러 각도에서 바라본다.

2부 백영수의 작품을 거닐다

2부에서는 1940년대부터 2010년대까지 제작된 백영수 작가의 작품을 연대 기순으로 만나본다. 출품작 수로 보았을 때 역대 최대 규모의 백영수 개인전이라고 할 수 있을 만큼 많은 수의 작품이 소개되었다. 각 시기별 백영수 작품의 특성을 파악하고, 고유의 화풍을 만들어가기까지의 탐색과 발전의 과정을 눈으로 확인할 수 있다.

백영수는 생을 마감할 때까지 매일 그리고 칠하고 손으로 빚어 만들기를 멈추지 않았다. 이는 곧 그가 평생 찾아 헤맨 자유를 향한 여정이었고, 종착지는 네 귀퉁이가 있는 캔버스였다. “그림 속에 있지 않으면 나는 없는 사람이나 마찬가지다.”라는 백영수의 말처럼 작가는 100여 년 동안 쉬지 않고 붓질을 했다. 백영수의 붓끝에서 탄생한 단란한 가족, 편안히 누워 쉬는 어린이, 아이를 업고 안은 어머니, 하늘을 나는 모자, 마당과 집, 창과 문 등의 친근한 소재들은 간략한 선과 차분한 색으로 많은 이들에게 평온함을 준다.

의정부예총 기획

정책토론회

헤븐리보이스

기고문

정책토론회

박 소 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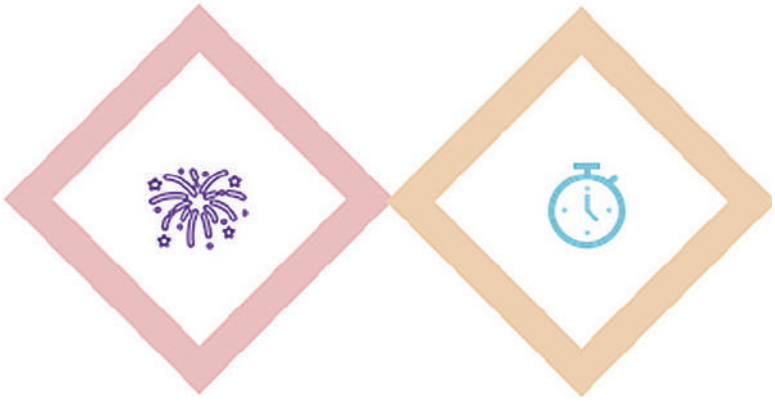
현) 신한대학교 뷰티헬스전공 주임교수 / 미술학 박사

신한대학교 경기북부개발연구원 뷰티향장융합연구소 소장

의정부시 문화예술단체보조사업 평가위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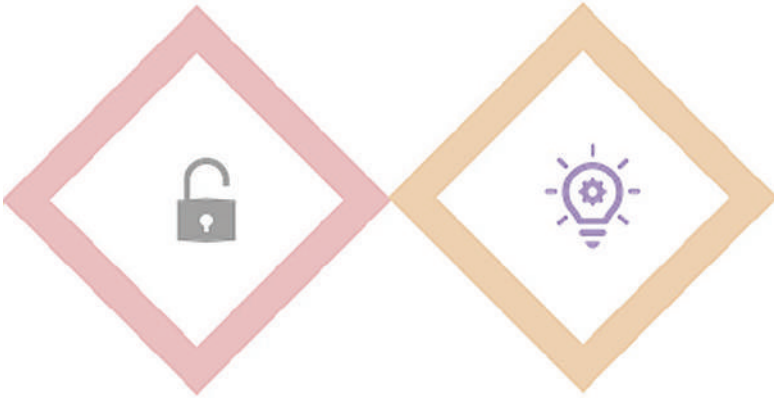
(사) 한국일러스트레이션학회 이사

국제공모전 운영위원



1
축제와 문화예술의 관계

2
축제의 동향



3
문제 진단

4
발전 방안

경기북부 지역축제 및 문화예술 활성화 방안

[신한대학교 **박소정** 교수]

1. 축제와 문화예술의 관계

· 사람들은 왜 축제(祝祭)에 관심을 갖고 문화예술(文化藝術)을 향유하고 싶어 하는가

- 브리태니커(1988) : 축제의 뿌리는 공공의 축연과 축하의식
- Huizinga(1938) : 축제는 인간의 내재되어 있는 유희적인 본성이 문화적으로 표현된 것
- 이미순(2010) : 축제는 모든 예술이 다양하게 엮어져 있는 종합예술
- 위키백과(2020) : 최근 축제가 지역 기반 문화 산업으로 인식되어 경제적 가치, 놀이문화의 관점에서 주목 문화예술은 문화와 예술을 융합하여 예술 활동이 있는 문화를 나타내는 것

2. 축제의 동향

· 국내지역축제의 추이

문체부, 2019년도 문화관광축제 41개 선정

-대표 문화관광축제 무주반딧불축제, 문경찻사발축제, 산청한방약초축제-

[2019년도 문화관광축제]

◆**(글로벌 육성 축제)** 화천산천어축제(↑), 김제지평선축제, 보령머드축제, 진주남강유등축제, 안동탈춤축제
※대표등급을 5회 연속 유지하여 문화관광축제를 졸업한 명예축제

◆**(대표축제 3개)** 무주반딧불축제(↑), 문경찻사발축제(↑), 진도신비의바닷길축제, 광주추억의충장축제(↑)
보성다향대축제(↑), 안성맞춤남사당바우덕이축제(↑), 제주들불축제(↑)

◆**(우수축제 10개)** 정남진장흥물축제, 통영한산대첩축제, 봉화은어축제, 평창효석문화제, 강진청자축제,
원주다이나믹댄싱카니발(↑), 수원화성문화제(↑), 춘천마임축제(↑), 임실N치즈축제(↑), 시흥갯골축제(↑)

◆**(유망축제 21개)** 순창장류축제, 음성품바축제, 영암왕인문화축제, 고창모양성제, 서산해미읍성축제, 대구약령시한방문화축제, 괴산고추축제,
완주와일드푸드축제, 여주오곡나루축제, 한산모시문화제, 인천펜타포트음악축제, 밀양아리랑대축제, 논산강경젓갈축제,
부여서동연꽃축제, 고령대가야체험축제, 대구치맥페스티벌(신규), 영덕대게축제(신규), 횡성한우축제(신규), 강릉커피축제(신규),
평창송어축제(신규), 포항국제불빛축제(신규)

※(↑) 등급이 한 단계 상승한 축제, (신규) 문화관광축제로 신규 진입한 축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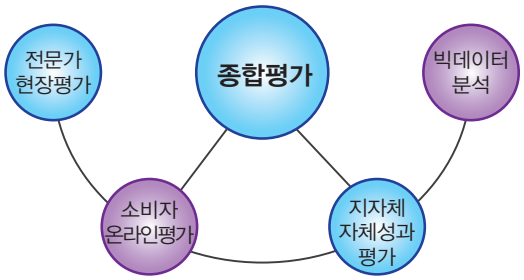
자료 : 문화체육관광부

2. 축제의 동향

· 국내지역축제의 평가동향 〈문화관광축제 평가대상(2018)

등급	대표축제	최우수축제	우수축제	유명축제
부산(2)				광안리어망축제 동래읍성역사축제
대구(1)				대구약령시한방문화축제
인천(1)				인천펜타포트음악축제
광주(1)			추억의충장축제	
대전(1)				대전효문화뿌리축제
경기(5)		이천쌀문화축제	안성맞춤남사당마우덕이축제	수원화성문화축제 시흥갯골축제 여주오곡나루축제
강원(4)	화천산천어축제	평창효석문화축제	원주다이나믹댄싱카니발	춘천국제마임축제
충북(2)				괴산고추축제 음성품바축제
충남(4)			강경젓갈축제 서동연꽃축제	한산모시문화제 해미읍성축제
전북(5)	무주반딧불축제			순창장류축제 완주와일드푸드축제 고창모양성제 임실N치즈축제
전남(7)		강진청자축제 진도신비의바닷길축제 담양대나무축제	보성다향축제 정남진장흥물축제	영암왕인문화축제 목포항구축제
경북(3)		문경전통찻사발축제	봉화은어축제	고령대가야체험축제
경남(3)		산청한방약초축제	통영한산대첩축제	밀양아리랑축제
제주(1)			제주들불축제	
계(10)	2개	7개	10개	21개

〈축제 평가체계〉-문체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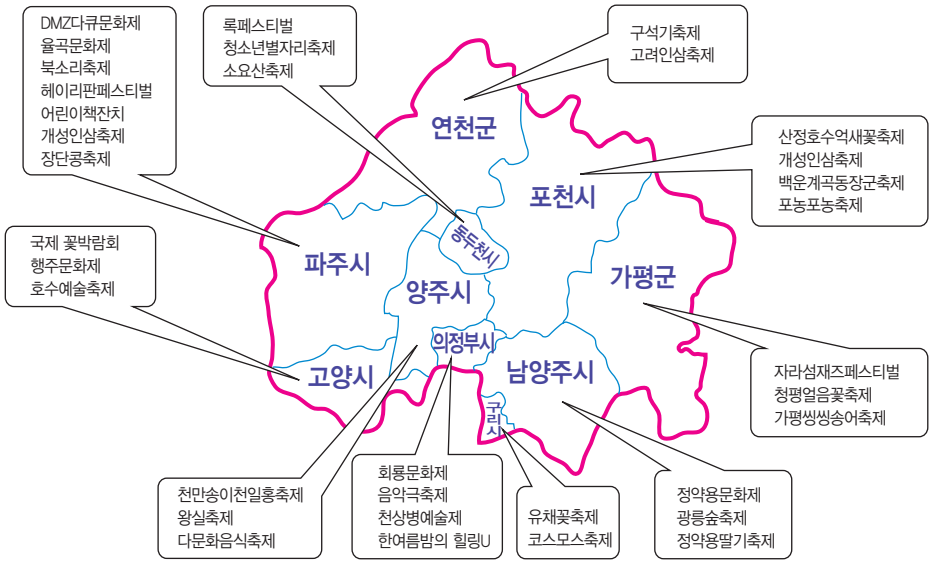
자료 : 2019 (주)티엔엘, 파주시 축제 고도화 및 특화 육성 연구

〈축제 평가항목〉-문체부

	평가항목	배점
1	축제의 기획 및 콘텐츠	45
2	축제의 운영	20
3	축제발전 방향	30
4	축제의 효과	5

2. 축제의 동향

· 경기북부 축제현황 〈경기북부의 지역별 축제현황〉



2. 축제의 동향

· 지역축제의 최근 성공사례

안산거리극 축제
(Ansan Street Arts Festival)

- 안산시에서 2005년부터 매년 5월마다 개최되는 거리예술축제로 2013년부터는 안산문화광장에서 진행
- 거리를 무대로 공연을 펼치는 전 세계 길거리 예술단이 모두 모이는 글로벌 축제
- 처음에는 소규모 쇼가 거리 곳곳에서 펼쳐졌지만, 거리공연을 테마로 확대한 이후 크게 성공한 축제임
- 서커스, 마임, 저글링 등의 다양한 공연과 설치미술, 코미디 쇼 등의 예술공연
- 거리극 특성상 관객과 무대가 함께 호흡하는 모두를 위한 축제
- 거리극학교, 예술놀이터 등의 관객 참여형 프로그램도 진행
- 국내 최고의 거리극 축제로 세계적인 공연으로 발돋움하고 있는 국제거리극축제
- 축제 방문객 77만명(2019년 기준)

축제테마의 확대와 정비 **특화된 장르**

웨이팡 국제 연날리기 축제
(Weifang International Kite Festival)

- 1984년 연 축제를 시작하여, 1987년 국제 연박물관을 건립
- 2020년 9월 26일~10.8 열린 제37회 연날리기 문화축제 성
- 산등성이 중국 문화를 전파하고 다른 국가와의 친교를 맺기 위한 교류 플랫폼
- 코로나19의 유행으로 외국 선수는 불참,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45개 국가 및 지역의 51개 팀이 스크린으로 연날리기를 공유
- 전향적이고 개방적이며 매력적인 연 문화를 홍보하는 것에 전념
- 2020 외교 사절단 및 국제 자매도시 시장 웨이팡 투어, 2020 일대일로 국제 댄스 콘퍼런스 제15회 '카이트 컵' 스탠더드 댄스 국제 오픈등과 같은 다른 행사도 진행
- 개막식 오후에는 총 투자액 139억4천100만 위안에 달하는 29개 프로젝트가 참여한 박람회 및 한 · 중 · 일 산업 엑스포의 주요 협력 프로젝트에 대한 협약 체결식
- 웨이팡의 산업 개발 및 도시 기능 계획과 맥을 같이 하는 축제로 성장

문화자원의 기획화 **언택트 공유와 프로젝트화**

3. 문제 진단

· 경기북부와 타지역 유명축제의 비교분석 〈축제의 전반적인 내용 비교분석〉

	의정부 회룡문화제	수원 화성문화제	베니스 카니발축제
유 래	조선 태조 · 태종의 회룡사 상봉의 전설을 바탕	정조의 효심과 개혁사상의 산물인 수원 화성 축성의 역사적 의미를 기리고자 개최	베네치아 공화국이 1162년 아퀼레이아(Aquileia)와의 분란에서 승리한 기념
역 사	1986년	1964년	1296년
장 소	경기북부청사 및 주변	수원 화성행궁 광장 및 수원화성 일원	베네치아 산마르코광장 및 주변
기 간	10월 중순 5일간	10월 초순 4일간	사순절 전일까지 1월말~2월초 10일간
주요 콘텐츠	1986년	정조대황 능행차, 무예브랜드공	가면축제와 가장행렬
프로그램	전통예술공연, 회룡노래자랑, 창작무용극, 작품전시, 학술토론회, 체험부스, 등축제, 버스킹 등	장용영 수위의식, 조선별미극장, 수원화성상상공작소, 조선핫플레이스, 수원화성야간투어, 미디어아트, 행궁오솔길 빛 퍼포먼스, 유여택음악회, 전통공방체험, 굿파트DJ퍼포먼스, 타악퍼레이드, 국제자매도시의 밤 등	아름다운 가면경연대회, 천사강림이벤트, 전통의상 퍼레이드, 운하 퍼레이드, 불꽃축제, 연극, 민속오락 등
대상/방문객	지역사회 주민	전국 및 글로벌/ 74만명	이탈리아 및 전 세계/ 300만
기대효과	의정부의 전통문화축제로서 전통과 지역문화의 어울림 속에 시민화합	수원화성 문화유산과 전통문화의 자긍심 고취와 글로벌 홍보, 지역경제 활성화	국가브랜드 상승과 지역경제 활성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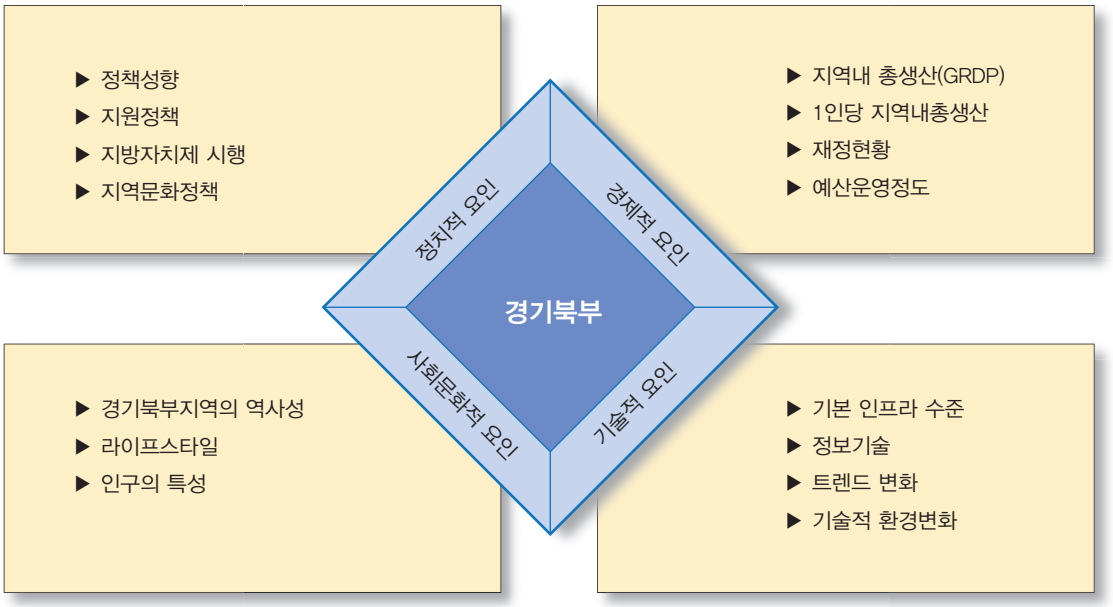
3. 문제 진단

· 경기북부와 타지역 유명축제의 비교분석 〈축제성공요인에 따른 비교분석〉

요인 \ 축제명		의정부 회룡문화제	수원 화성문화제	베니스 카니발축제
핵심요인	유희성	– 토속성이 강하므로 전통예술 문화 관심 정도에 영향을 받음 – 젊은 층의 유희성 유도가 어려움	– 수원화성의 유네스코문화 유산을 중심으로 역사성을 토대로 고전과 현대의 퓨전 형식으로 다양한 연령층의 흥미를 유발시킴	– 베니스가면과 의상의 심미성 높음 – 가면경연과 퍼레이드의 흥미성 높음 – 천사강림행사의 신비감 – 운하, 불꽃 등 화려함
	체험	–노래자랑 : 일반적 –체험부스 : 일반적 –버스킹 : 제한적	– 전통공방, 조선핫플레이스 – 야외파티, 기인열전,토크콘서트 – 시민공연프로그램(시민공모) – 행궁축조오락관 등 다수 : 퓨전스타일로 특별함, 흥미성유발	– 가면경연대회 : 특별함 – 민속오락 : 흥미성
부가요인	주변 경관	의정부 도심으로 일반적임	수원화성의 웅장한 문화재를 중심으로 주변일대를 넓게 활용	산마르코 광장의 아름다운 건축과 운하, 유명성당, 카페, 명품쇼핑거리 등
	지역 특산품	부대찌개	임금님빵	베니스 가면, 유리공예품, 레이스 등
	숙식	의정부 및 주변 숙식가능	체류형 축제로 성장 수원 및 주변 숙식원활	베니스 및 주변도시 관광 및 숙식원활
	환대	인적자원의 친절정도 개선중임	인적자원의 친절정도 개선중임	글로벌 매너쉽 형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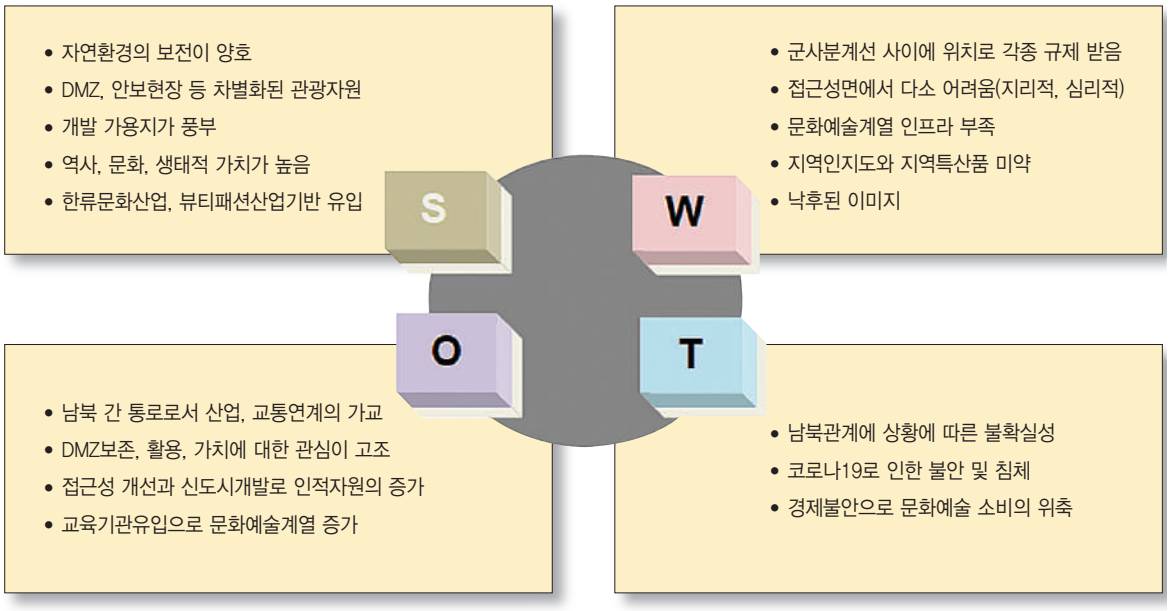
3. 문제 진단

· 경기북부 축제와 문화예술 거시적 환경분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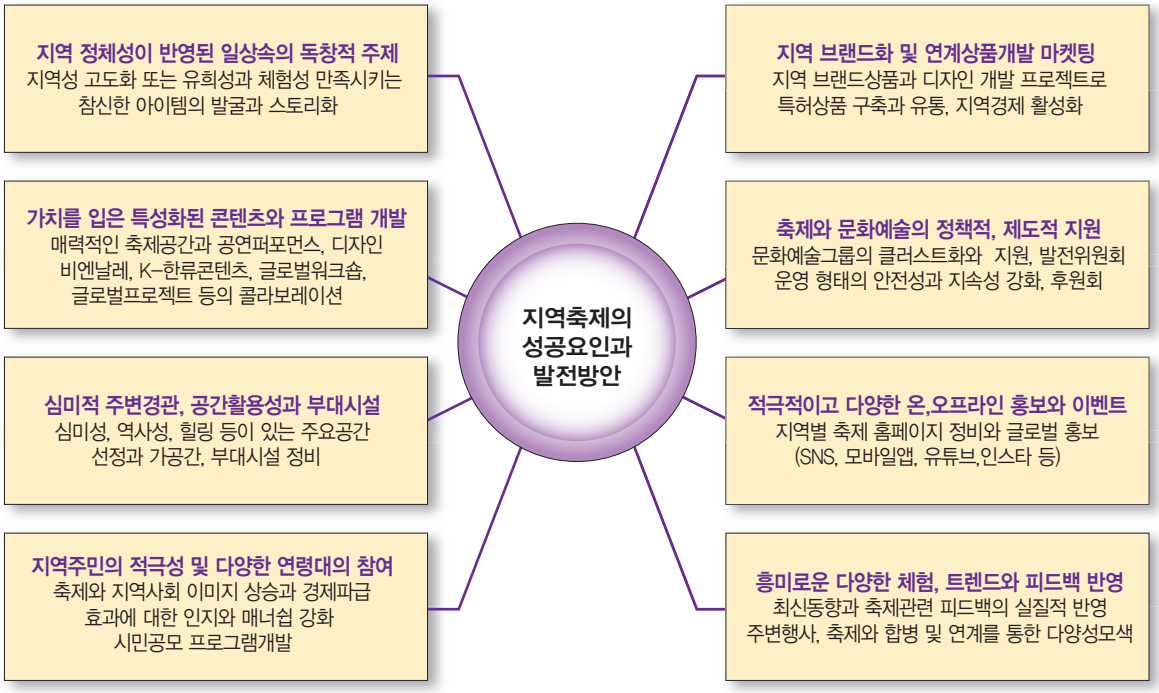


3. 문제 진단

· 경기북부 축제와 문화예술 SWOT 분석



4. 발전 방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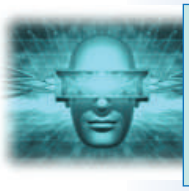


4. 발전 방안

· 팬데믹 시대에 따른 활성화 방향

온택트 (ON:TACT) 타입의 축제

- 언택트와 온라인이 접목된 방식
- 위드 코로나 시대의 대세 플랫폼
- 유튜브 채널과 온라인커머스를 적극 활용
- 감사, 댓글 이벤트 등 참여형 온라인 소통



가상현실(假想現實, virtual reality, VR) 타입의 축제

- 사용자의 오감을 자극하며 실제와 유사한 공간적, 시간적 축제 체험을 하는 인공기술
- 실재하는 디바이스를 이용해 조작,명령 등 가상현실 속에 축제 구현물과 상호작용

하이브리드(Hybrid) 타입의 축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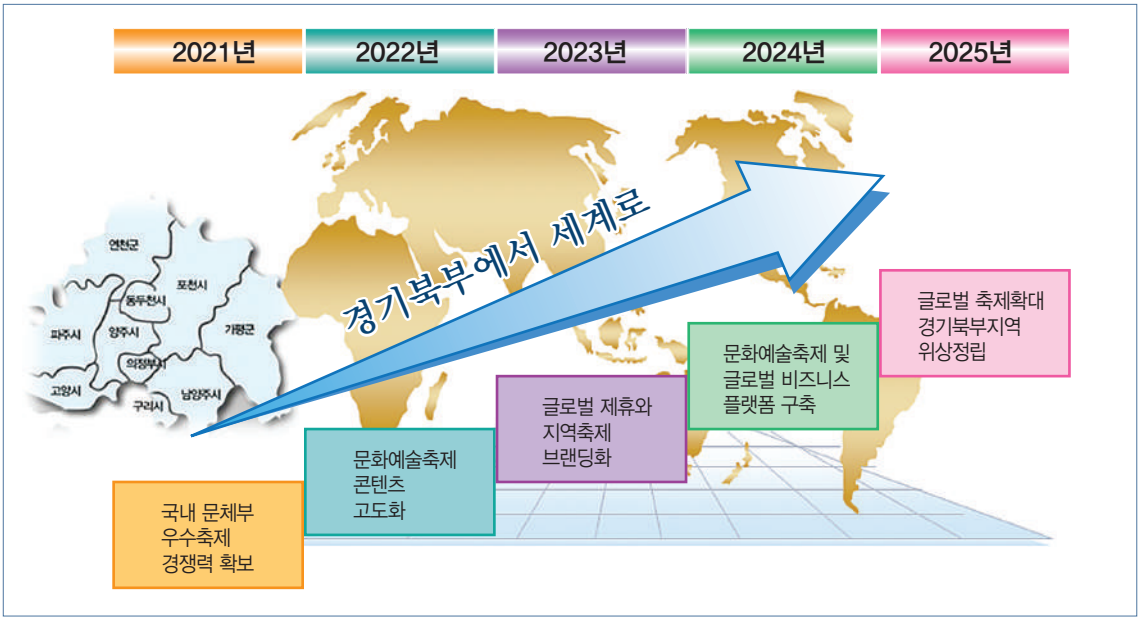
- 온라인과 오프라인의 융합형태
- 언택트공연과 전시로 아카이브구축
- 드라이브스루, 드라이브인 활용
- 서버/서비스 플랫폼 개발

축제시스템과 역량개발

차세대 IT시스템 구축을 통한 융합형 체계 구현

4. 발전 방안

· 단계별 활성화 추진목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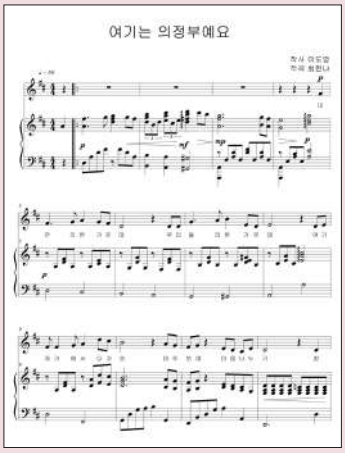
헤븐리 보이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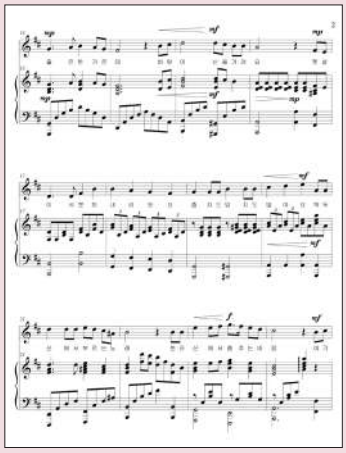
대 표
최 재 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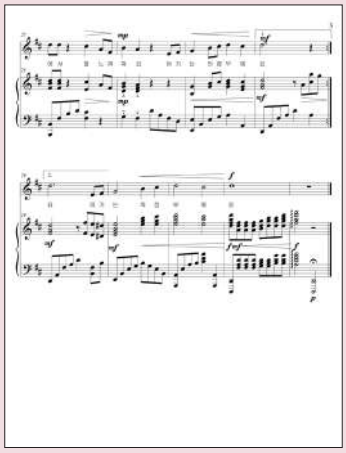
연세대학교 음악대학 성악과 졸업.
프랑스 파리 에꼴 노르말 음악원 최고 연주자과정 졸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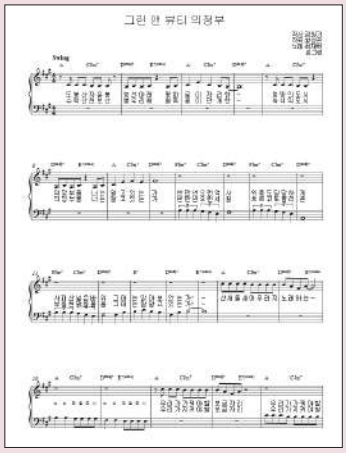
[주요사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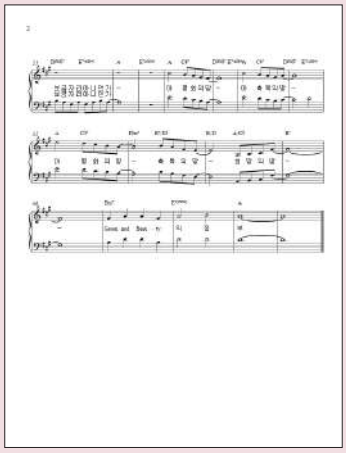
1. 예술, 문화 공연 및 교육
2. 예술, 문화에 관한 연구, 조사 자문
3. 예술, 문화의 관련된 정보 및 자료의 발간
4. 찾아가는 공연 및 예술교육











문화도시 의정부를 알리기 위한 창작 사업으로 의정부 연가, 의정부 시민의 노래, 의정부 관광 명소 노래, 의정부 청소년 노래 등 의정부를 주제로 의정부예총 문인협회와 협업을 통하여 작곡하였으며 헤븐리 보이스 소속 성악가가 발표 콘서트를 진행함.

창작한 곡은, "여기는 의정부예요(이도영 작사, 최한나 작곡, Ten. 황태경)", "곡선의 꿈 (양효숙 작사, 안소영 작곡, Sop. 양송이)", "푸른 꿈이 있는 곳(이지향 작사, 최한나 작곡, Bar. 탁현호, Bar. 전효혁", "흘러가는 대로 가라 (전영 작사, 강나루 작곡, Sop. 김지은)", "꽃처럼 피어나는 (임경자 작사, 안소미 작곡, Ten. 김진홍)", "찌개소리를 듣다 (김기수 작사, 강나루 작곡, M. Sop. 전진)", "엄마 꽃, 아빠 꽃 (전영 작사, 강나루 작곡, 헤븐리 보이스)", "의정부 사랑 (신성수 작사, 강나루 작곡, 헤븐리 보이스)", "그린 앤 뷰티 의정부 (김원기 작사, 황성곤 작곡, 윤그린, Ten. 최재혁)", "의정부시 청소년 재단송 (최순영 작사, 황성곤 작곡, 윤그린, Ten. 최재혁)", "산들바람 (현제명 작곡, 홍신주 편곡)", "가을밤 (동요-곡중솔로;김도은, 박태준 작곡, 진규영 편곡)", "코스모스를 노래함 (이홍렬 작곡, 홍신주 편곡)", "이별의 노래 (김성태 작곡, 홍신주 편곡)", "10월의 어느 멋진날에 (한경혜 작사, R. Loveland 작곡, 헤븐리 보이스 Piano. 박해경)", 총 15곡의 노래를 의정부 시민들에게 제공하여 애향심 고취와 함께 의정부시를 홍보하는 계기를 가지는 기대 효과도 가지게 됨.

기고문

소프라노
한 마 루

의정부 여자고등학교
국민대학교 예술대학 음악학부 성악과
이탈리아 밀라노 아카데미 수료
파르마 국립음악원 전통과정 디플롬
파르마 국립음악원 최고연주자과정 만점 수석졸업
코르시코 시립음악원 만점졸업
베르첼리 시립음악원 오페라연주자과정 수료
베르가모 국립음악원 최고연주자과정 수료
마리아노코멘세 아카데미 합창지휘 디플롬
수십회 국제콩쿨 입상 및 수상
오페라 돈죠반니, 사랑의 묘약, 쟌니스키키, 라보엠 등 출연
파르마 레죠극장, 베르가모시립극장 등지에서 다수의 연주
이탈리아 Rho시 초청독창회, Milano 귀국독창회

[현]
의정부음악협회 성악이사
프렌즈싱어즈 단원
가온교회 음악감독
전문연주자로 활동중

La vita mia (나의 인생...)

[소프라노 **한마루**]

나는 의정부에서 태어났다. 중학교 입학 전까지는 지금 개발이 한창인 산곡동, 독바위라는 마을에 살았다. 작은 시골 마을에서 자란 나는 교실 한 켠에 있던 풍금(*페달을 밟아서 바람을 넣어 소리를 내는 건반악기) 연주하는 것이 신기하고 재미있었고, 자전거로도 한참이나 걸리는 등굣길에 아무도 듣지 않는 노래 부르기를 좋아했다.

초등학교 4학년, 생일선물로 부모님이 사주신 갈색 업라이트피아노는 그때부터 지금까지 내 보물 1 호. 피아노를 사고 얼마 되지 않아 집에 방문했던 어떤 지인분의 아들이 피아노에 볼펜으로 낙서를 했는데 그날 얼마나 서러웠는지... 아직도 친정집 거실에 한자리 차지하고 있는 예쁜 피아노. 버스정류장도 한참이나 걸어야 있는 시골 마을에서 그 보물, 피아노를 시작으로 음악을 지독하게 사랑했던 꼬마는 자라서 성악가가 되었다.

고등학교 2학년 겨울, 커서 뭐가 되어야 할지 고민이 많았다. 목표가 없이 그냥 대학에 가기위해 공부하는 인생이 되기는 좀 억울하다는 생각이 들었다. 난 어려서부터 다섯 살 터울인 어린 동생을 앉혀놓고 선생님 놀이하는 것도 좋아했고, 음악도 지독하게 좋아해서 중학교 시절 연합고사의 압박에도 밴드부, 합창부, 현악부, 리코더 합주부까지 모든 음악 관련 동아리를 넘나들었으니 음악 선생님이 되면 어떨까 싶었다. 선생님이 되기 위해 공부하는 것은 별로 무섭지 않았는데 막상 음악 선생님이 되려면 어떤 실기를 준비해야 하는지 몰라서 어릴 적 배우던 피아노도 다시 배우고, 당시 음악 선생님들은 노래를 그렇게 다들 잘하시길래 성악을 배우러 동네학원에 찾아갔다. 지금 생각해보면 무식하면 용감하다고 테스트받으러 간 레슨에서 성악전공을 해도 되겠다는 선생님 말씀에 '그럼 한번 해볼까?' 싶어 그 길로 노래하는 인생이 되어버린 것. 그렇게 일 년을 선생님 댁에서 거의 살다시피 노래를 배워서 대학에 진학했다. 그 무지함은 이때부터 조금씩 그 얼굴을 내밀었다. 고작 1년 공부한 노래로 대학에 갔으니 남들은 대학 입학했다고 신나서 노는데 나는 아는 것이 없으니 무섭고 막막했다. 그래도 첫 시험부터 성적이 꽤나 좋아서 '난 정말 엄청난 재능을 가졌나?' 하며 목에 힘이 들어갈 때쯤 어느덧 3학년이 되고 오페라들을 배우기 시작했다. '캬~ 세상에 이런 예술이 있다니!' 연극 같으면서 노래이고, 노래인 듯 하다가 오케스트라 음악에 빠져버리고 그런 듯 하다가 다시 노래이고... 그야말로 종합선물세트 같은 이 엄청난 예술에 푹 빠져버렸다. 막연히 대학을 졸업하면 오페라의 본고장, 이탈리아에 한 번만 가봤으면 좋겠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유학이 뭐 마음만 먹으면 가지는 것인가... 돈을 벌어야했다. 피아노 학원에서 아르바이트도 하고, 모그룹 합창단에도 들어가고. 티끌을 열심히 모아서 비행기 표값정도, 학원비정도. 여튼 그렇게 조금이라도 모아놓고 부모님께 말씀드릴 작정으로 열심히 살았다.

결전의 날. 아버지는 공무원시험이나 보라시고, 어머니는 기도해보자셨다. 그러다 어찌어찌 설득에 성공(?)하여 졸업하고 1년 만에 몸집만 한 가방을 들고 이탈리아로 떠났다.

2007년 1월, 몹시도 춥던 어느 저녁에 당시 시골 버스터미널처럼 생긴 캄캄하고 별로였던 밀라노 말펜사 공항에 도착했다. 그렇게 나의 12년의 유학 생활이 시작되었다. 그날 마중 나와준 대학선배의 빨간자동차를 타고 친구가 살고 있던 집에 도착해서 먹은 한국식 저녁식사는 몹시도 맛있고, 지금 생각해도 너무나 감사했다. 이탈리아어는 아르바이트 다니며 비자승인 날 정도만 배운 것이 전부였고, 유학비도 넉넉지 않았으니 우리나라로 치면 주민센터 같은 곳에서 운영하는 언어학교에 등록해서 다니며 언어를 배웠다. 국립음악원 입학시험은 한해에 한 학교만 칠 수 있었던 때라서 절대! 재수는 없다며 부담감 잔뜩 안고 공부해서 한 번에 합격했다. 이탈리아 도착한 지 일 년도 안되어 대학에 들어간 꼴이니 수업을 따라가는 것은 정말이지 눈물

겨웠다. 그래도 무시당하기 싫고, 무엇보다 바보같은 내 꼴이 우습게 느껴져서 언어연습도 진짜 많이 했다. 언어수업에서 호텔 예약하는 대화를 배우면 동네 호텔에 전화해서 괜히 방있냐고 물어보기도 하며. 그렇게 조금씩 적응하며 신나는 학교생활을 했다. 비록 돈은 좀 없고, 외롭기는 했어도 정말 아름다운 시절을 보냈다. 12년이 지나는 동안 이탈리아에서 지금의 남편을 만나 결혼도 하고, 아이도 그곳에서 낳느라 온갖 병원에서나 쓰는 용어들을 공부하며 임신 기간을 보내고 (그 공부 덕에 후에 친한 동생이 아이 낳는 분만실까지 따라가서 통역도 했으니 조금 일반적이지 않은 인생인 것은 확실하다.), 큰 전시가 열려서 한국기업들이 이탈리아에 올 때는 통역아르바이트도 하고, 콩쿨이며 오디션이며 연주며 형편이 되는대로 열심히 다니며 파란만장 행복한 추억을 많이도 쌓았다.

그렇게 지내다가 아이가 한국 나이로 5살이 되면서 우리 부부는 앞으로의 행보를 결정해야 했다. 어차피 평생을 외국에서 지내지 못할 거라면 아이가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에 한국으로 귀국해야 하는 것은 아닌가 싶었다. 무슨 정신이었는지 급하게 귀국을 결정하고 짐을 정리하는데 그 며칠이 얼마나 쓸쓸하던지. 십 여년 우리의 인생이 고스란히 녹아있는 짐들을 버리지도 못하겠고 들고 오자니 한국에 도착하면 어디 쓸데가 있겠냐며... 거르고 또 거른 끝에 짐을 보내고, 정리하고 그렇게 12년 외국 생활을 마치고 한국으로 돌아왔다.

옛날이나 10년이면 강산이 변한다고 하지. 요즘은 2~3년만 한국에 안 다녀가도 길을 잃기 쉽고, 언젠가는 전철 티켓 사는 것을 못 해서 한참이나 서성거리다가 도움을 받은 적도 있고. 그런 빠른 세상, 대한민국에 12년 만에 돌아오고 보니 할 수 있는 일이 많이 없었다. 고향에 돌아와서 의정부 음악협회에 무작정 연락을 했다.

난 이러이러한 사람인데 협회에 들어가려면 어찌해야 하냐고. 그렇게 의정부의 음악인들을 조금씩 만나기 시작했고, 연주도 좀 할 수 있었다. 올해는 음악협회 성악 이사가 되기도 했다. 하지만 꿈꿔온 한국생활과는 조금 달랐다. 어느 작은 나라의 작은 동양인 여자아이이긴 해도 국제 콩쿨에서 여러번 상도 받고, 오디션이나 공연에서도 늘 좋은 평가를 받으며 재미난 생활을 하다가 한국에 왔더니 나 같은 신인 음악가, 그것도 서양의 클래식 음악을 공부하고 줄 없고 백 없는 아이 엄마가 할 수 있는 일은 많지 않았다. 그래도 이탈리아에서 나고 자란 딸아이의 적응이 첫 번째였다. 그러니

여기저기 오디션이나 인사 다니기도 좀 조심스러웠다.

'이왕 이렇게 된 거 의정부에서 소소하게라도 할 수 있는 일을 해보자!' 하며 개인 레슨도 종종 하고, 작은 연주여도 성악을 알릴 수 있다면 좀 나가 보자며 열심히 보냈다. 그러다가 요놈의 코로나 바이러스가 우리 앞에 뚝! 떨어졌다. 이걸 다행이라고 이야기 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이탈리아는 어마어마한 환자들이 야전침상에 누워 명을 달리 하고있는 상황이라는데 그래도 의료선진국 한국에 있으니 무조건 한탄만 하기엔 감사한 하루하루. 상황이 이렇다 보니 그전에도 없던 연주가 더 없다. 내가 부를 일도 없고, 들으러 갈 일도 잘 없고. 연습실에 앉아 우스갯소리로 '연습실 프리마돈나'라며 헛웃음을 짓는 것이 전부다. 지난 십여 년 스펙터클했던 일상들에 비교하자면 이렇게 내 고향, 의정부에서의 하루하루가 무료하게 지나고 있다.

유학 중 내가 가장 오래 거주했고, 딸아이가 태어난 파르마라는 도시에는 가을이면 축제가 열린다. 베르디라는 그 지역 출신 작곡가의 이름을 따서 진행된다. 기간 내내 마을 곳곳에서 베르디의 오페라가 울려 퍼지고 상점마다 오페라 의상들을 전시하기도 하고 극장에도 공원에도 길에도 공연이 정말 많다. 자전거 타고 지나가다 듣고 가는 사람, 드레스를 차려입고 극장에 방문하는 사람 등. 그 모습도 천차만별이다. 그 축제를 볼때마다 한국에도 이런 멋진 문화행사가 있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다. 전 세계의 오페라를 사랑하는 사람들이 모여드는 그런 축제. 그런 곳에서 노래하는 한국 학생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른다. 저 멀리 어디쯤 있는 나라의 학생이 자기들의 문화를 배우고 보여주는 것에 감사하며 진심으로 박수를 쳐준다. 날마다 꿈을 꾸는 듯 했다. 그런 꿈같은 생활에 비하면 의정부에서의 음악 인생은 그리 쉽지만은 않다. 기계음에 익숙한 시대, 그 속에서 클래식 음악가로 산다는 것은 때로 서글프기까지하다. 음악교육이 점점 줄어들고 함께하는 공연은 여러 가지 이유로 기피대상이 되고, 자극적이고 쉽고 간편한 것에 더 집중하는 이 시대에서 들어보지도 않고 지루하다고 말하는 클래식 음악. 그것도 2020년 코로나19로 팬데믹을 맞은 시점에 성악가라니. 그렇지만 오늘도 계속 꿈을 꾸고 움직인다. 내가 태어나고 자라며 꿈을 꾸고 간직하고 어쩌면 얼추 이루며 살아가고 있는 이곳, 의정부에서, 내 아이가 또 자라고 있는 이 작지만 큰 가능성이 있는 도시, 의정부가 언젠가는 어렵기도 하겠지만 묘한 매력을 가진 클래식 음악을 지키고 가르치는 곳이 될 수 있길. 어린시절, 작고 낡은 풍금소리 울리던 교실처럼 친구들과 모여 동요 한자락, 가곡 한곡조 신나게 부르며 꿈꾸는 학교들이 많이 일어나길. 언젠가 의정부지역의 여러 음악가들이 모여 그토록 신기하고 경이로운 종합예술, 오페라를 만들어 공연하는 날이 올 수 있기를.

전시부문 작품

문인

미술

사진

내 친구예요

장르 : 동화

김마리아

명지대학교 문예창작학과 졸업
2000년 월간 [문예비전] 시 부문 신인상.
제15회 MBC창작동화대상 단편 부문 가작.
2007년 동아일보 신춘문예 동화 부문 당선.

저서

[수지 아줌마 오줌 싸다],
[있잖아, 스컹크야], [동글이와 뾰족이],
[꼬미의 멋진 생각], [윙크가 필요해] 등.

"으아아!"
은규가 비명을 질렀어요. 교실 안의 시선이 한곳에 모였어요. 아이들이 곳곳에서 소곤거렸어요.
"쟤 또 왜 저래."
"아, 저 소리 듣기 싫어."
"쟤 땜에 공불 못하겠어, 그냥."
선생님이 은규 앞에 다가와 타이르듯 물었어요.
"왜 그러니, 은규야?"
"내 지우개예요, 내 거예요."
"은규 말만 듣고는 무슨 일인지 모르겠구나."
선생님은 은규 짝꿍인 해수에게 다시 물었어요.
"무슨 일이니, 해수야?"
해수는 원망의 눈초리로 은규를 보며 대답했어요.
"은규 지우개를 빌렸거든요. 쓰기 전에 빌려 달라고 분명히 말했어요."
선생님은 그제야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랬구나. 해수가 은규 지우개를 가져다 써서 은규가 속상했구나."
이번엔 은규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내 지우개니까 내 거예요."
해수가 손에 쥐고 있던 지우개를 얼른 은규에게 주었어요.
"맞아! 은규 거야. 그러니 해수가 다시 돌려줬지. 자자, 얘들아! 조용히 하고 수업하자!"
상냥하게 은규를 달래는 선생님을 보며 지민이는 생각했어요.
'치이, 우리 선생님은 화낼 줄도 모르시나 봐.'
수업이 끝나자 아이들은 신이 나서 교실을 빠져나갔어요. 교실엔 지민이와 은규만 남았어요. 지민이는 하굣길을 싫어해요. 날마다 따라붙는 은규 때문이에요.
'은규를 떼어놓고 갈 방법이 없을까?'
지민이가 고민할 때였어요.
"친구야, 나 화장실 갔다 올게."
화장실로 향하는 은규를 바라보며 지민이는 생각했죠.
'오늘은 혼자 집에 갈 수 있겠네!'
지민이는 쏜살같이 달렸어요. 학교를 벗어난 지 오래지만 달리기를 멈추지 않았어요. 은규가 어느새 뒤쫓아 올까 봐 겁이 났거든요. 괜한 걱정이 아녔어요. 어느 틈엔가 달려 나온 은규가 저만치서 지민이를 불렀거든요.
"친구야!"
지민이는 더욱 속력을 내며 외쳤어요.
"따라오지 마!"
하지만 잠깐 새에 은규가 바짝 뒤쫓아왔어요. 은규는 달리기를 잘해요. 공부는 늘 꼴찌인 데에다 노래도 못하고 말투도 어눌했지만 달리기는 언제나 일등이에요. 결국 지민이는 달리기를 멈췄어요. 아무리 애써도 소용없다는 걸 알고 있었으니까요. 은규도 지민이를 따라 천천히 걷기 시작했어요. 저만치 도서관 앞에 놓인 계단이 보이자 지민이가 인상을 찌푸렸어요. 반대로 은규 표

정은 밝아졌답니다.
"친구야, 나 저기 갈래."
"혼자 가! 난 집에 갈 테니까."
집에 간다는 지민이 팔을 은규가 잡아끌었어요.
"왜 이래?"
"계단이야. 계단 좋아."
은규는 계단을 수없이 오르내렸어요. 오르내리다 지치자 계단 밑 땅바닥에 드러누워 뒹굴었답니다. 계단 한쪽에 앉은 지민이가 은규를 쳐다보며 한숨을 쉬었어요.

"엄마! 나, 은규랑 같이 다니기 싫어."
"이유가 뭔데?"
"이유 엄청 많아. 은규랑 다닌다고 애들이 놀리지, 은규 땜에 툭하면 지각하지, 집에 오는 길엔 도서관 계단에서 아주 오래 앉아 있어야 하지! 말하자면 끝도 없어."
"지민아, 몸이 아픈 사람이 있듯이 은규는 생각주머니가 아픈 거야. 너 아플 때 엄마가 널 미워하데?"
"아니…."
"엄만 지민이 아플 때마다 대신 아프고 싶어. 엄마와 너처럼 너희 둘도 오래도록 기쁨과 슬픔을 나누며 지냈으면 좋겠어."
지민이는 말없이 엄마 눈을 바라보았어요.

지민이와 지민 엄마, 은규와 은규 엄마가 슈퍼마켓에 왔어요. 주말까지 은규와 보내자니 지민이는 은근히 화가 났어요. 은규와 나란히 걷기 싫어서 걸음을 재촉했답니다. 하지만 소용없었어요. 은규 걸음걸이가 훨씬 빠르니까요.
지민 엄마가 두 아이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어요.
"은규야, 지민이가 그렇게 좋아?"
은규가 큰소리로 대답했어요.
"친구예요. 지민이는 은규 친구예요."
은규 엄마가 맞장구를 쳤어요.
"그래. 지민이는 은규의 둘도 없는 친구지!"

"나, 청소 당번이니까 너 먼저 가."
지민이는 오늘도 은규를 떼어놓기 위해 애썼어요.
"안 갈 거야. 은규는 친구랑 갈 거야."
"왜 이래! 얼른 가. 청소하는 데 한참 걸린다고."
청소 당번 아이 중 하나가 지민이에게 물었어요.
"너희 둘이 사귀냐?"
몇몇 아이가 그 틈에 끼어들었어요.
"몰랐냐, 얘네 사귀는 거?"
"남자끼리 어떻게 사귀냐?"
아이들이 시시덕거리며 웃었어요. 한 아이가 다가와 아이들을 나무랐어요.
"그만해. 너흰 심술 먹고 사니?"
아이들이 서로 다투기 시작했어요.
"뭔데 참견이냐?"

"넌 뭔데 지민이랑 은규 일에 참견하니?"
티격태격하는 아이들을 보자, 지민이는 은규가 더욱 귀찮게 여겨졌어요.
"운동장에 나가서 기다려, 은규야! 너 있으면 청소에 방해되니까."
지민이 말에 은규가 활짝 웃었어요.
"기다릴래. 운동장에서 기다릴래."
"그래, 기다려. 운동장에서."
은규는 부지런히 가방을 메고 교실을 나섰어요. 청소를 마친 지민이가 고개를 길게 빼고 운동장을 내려다보았어요. 운동장 한가운데 주저앉아 흙을 휘젓는 은규가 보였어요.
'진짜 기다리네!'
지민이가 한숨을 쉬는 사이 은규가 벌떡 일어나더니 운동장을 돌며 뛰었어요. 한 바퀴, 두 바퀴, 세 바퀴! 멈출 줄 모르는 은규를 바라보며 지민이는 생각했어요.
'은규가 교실 반대편 끝에서 달릴 때 살짝 빠져나가야지!'
1층 복도로 내려온 지민이는 창문 뒤에 숨어 운동장을 살폈어요. 저 멀리 등을 지고 달리는 은규가 보였어요. 이때다 싶은 지민이는 순식간에 정문 밖으로 내뺐어요. 잠시 후 나머지 청소 당번 아이들이 건물 밖으로 나왔어요. 은규는 아이들을 찬찬히 살폈어요. 지민이가 안 보이자 다시 운동장을 돌며 뛰기 시작했죠.
지민이는 손가락으로 V자를 그렸어요.
'오늘은 정말 성공이야!'
은규는 뛰던 걸음을 멈췄어요. 달리기를 하는 건 신나는 일이에요. 힘껏 뛰는 동안에는 뭔지 모를 답답함이 등 뒤로 빠져나가 사라지는 기분이 들거든요. 하지만 너무 오래 달린 탓에 숨이 차고 다리가 후들거렸어요. 결국 운동장 바닥에 털썩 주저앉아버렸지요. 손바닥을 땅에 뻗어 흙을 휘휘 저었어요.
'빨리 와라, 친구야.'
은규는 두 손에 흙을 담아 냄새를 맡았어요. 흙에선 엄마 냄새도 나고, 나무 냄새도 나고, 바람 냄새도 나고, 빗물 냄새도 나고, 해님 냄새도 났어요. 그래서 은규는 의자에 앉기보다 흙 위에 아무렇게나 앉을 때가 훨씬 좋았어요.
아이들이 모두 집으로 가고 운동장엔 은규 혼자 남았어요. 텅 빈 운동장을 서성이며 은규는 지민이만 기다렸어요. 서성이다 지치면 다시 운동장에 앉아 흙을 가지고 놀았어요. 흙장난마저 재미가 없어지자 마냥 교실만 올려다보았어요.
당직기사 아저씨가 이따금 은규를 살펴보았어요. 저녁 무렵까지 은규가 집에 가지 않자, 아저씨가 다가와 물었어요.
"엄마가 기다리실 텐데 집에 가야지."
"친구 기다릴래요. 운동장에서 친구 기다릴래요."
"친구?"
"네. 은규는 친구 기다려요."
"친구가 어딨는데?"
"지민이는 청소해요. 지민이는 은규한테 올 거예요."
"여태 무슨 청소를 해! 친구가 몇 학년 몇 반이냐?"

지민이는 침대 위에 누워 만화책을 펼쳤어요. 은규는 까맣게 잊고서요. 뭐가 그리 재밌는지 만화책에 코를 박고 연신 벙글거렸어요. 가끔은 침대 위를 이리저리 구르며 크게 웃었어요.
"뭐가 저리 재밌을까."
설거지를 하던 지민 엄마가 빙긋 따라 웃는 순간 초인종이 울렸어요. 현관문을 열자 은규 엄마가 초조

한 얼굴로 서 있었어요.
"우리 은규 여 나요?"
"아뇨."
지민이는 아차 싶었어요.
'아직 집에 안 갔다고?'
만화책을 덮어놓고 지민이는 얼른 거실로 나갔어요.
"지민아! 우리 은규랑 어디까지 같이 왔니?"
"오늘은, 따로 왔어요."
따로 왔다는 말에, 지민 엄마가 나무라듯 말했어요.
"엄마가 은규랑 꼭 같이 오랬지! 왜 따로 왔니?"
"오늘 청소 당번이라 은규한테 먼저 가라고 했어."
"먼저 가랬더니 그냥 가데?"
"응…."
'응'이라고 대답하는 지민이 목소리가 가늘게 떨렸어요. 은규 엄마는 넋 나간 표정이 되었어요.
"제가 찾아볼게요."
지민이의 말에 은규 엄마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고마워, 지민아!"

당직기사 아저씨와 은규가 텅 빈 교실로 들어왔어요.
"아무도 없잖니. 그러니 이제 집에 가렴."
"친구 기다릴래요. 운동장에서 친구 기다릴래요."
"고집도 참! 친구가 그렇게 좋으냐?"
"네. 지민이는 은규 친구예요."

지민이는 그 어느 때보다 빨리 뛰었어요. 숨을 몰아쉬며 달리는 지민이 머릿속엔 은규 생각만 가득했어요.
'아무 데도 없으면 알아서 해!'
은규가 좋아하던 놀이터를 지났어요. 은규는 없어요. 은규가 좋아하던 도서관 앞을 지났어요. 계단 위 아래 어디에도 은규는 없어요.
'대체 어딜 갔냐!'
숨이 목까지 차오른 지민이가 학교 정문 앞에 도착했어요. 운동장에 주저앉아 교실을 올려다보는 은규가 보였어요.
'기다리라는 말만 믿고 여태 저러고 있던 거야?'
지민이는 목이 터지도록 은규를 불렀어요.
"은규야~! 김은규~!"
은규가 재빨리 고개를 돌렸어요. 게슴츠레 힘없던 은규의 두 눈이 휘둥그레졌어요. 은규는 단박에 지민이에게 내달렸어요.
당직기사 아저씨가 은규와 지민이 앞으로 왔어요. 은규는 보란 듯이 큰소리로 외쳤어요.
"친구예요. 지민이에요. 내 친구예요."
"네 친구가 정말 왔구나."
아저씨가 물었어요.
"어딜 갔다가 이제 왔어! 친굴 이렇게 한참 기다리게 해서 쓰나?"
아무 말도 못 하는 지민이 손을 은규가 힘껏 잡아 주었어요.

눈을 기다리며

장르 : 시

오래된 것일수록
되돌아보면 새로워지는 법이다
더욱이 까마득히 잊혀진 것이었을 때 그것은
당연히 형용사를 잃어버리게 한다

늦은 겨울 저녁
눈을 기다리며 바라보는 하늘은
가을 투명한 폭력과 짧은 만남을 새롭게 하고
벌판에 설정된 동면의 풀더미
봄날 머리 풀던 바람 그립게 한다

짧은 헤어짐과 깊게 만나는 꿈 아래에서
미안해 미안해 달아나는 시간
눈을 기다리는 불안한 통화

그래서 마침내 눈은 내리겠지만
내린 눈은 언젠가는 그리움이 되겠지만
혹은 가만가만 기억의 문을 빠져나가겠지만

지금 마음 한 가지를 부러뜨리는 것은
잊혀지지 않는 실명(失名)의 꿈
지워버리며 무너뜨리며 새롭게 하는 일
점점점 뚜렷하게 잊어버리는 일

잊혀진 것일수록 되돌아보면
마음 잘라내는 아픔이 되는 법이다.

심춘보

– 충북고등학교, 충북대학교 사범대학 국어교육과(학사), 경희대학교 교육대학원 국어교육 전공 졸업(석사) 후 현재까지 교단에서 아이들을 가르치고 있음
– 소래고, 의정부공고, 의정부고, 인창고, 문산중, 탄현중, 진건고 등 경기도에서 중등학교 교사, 교감으로, 경기도포천교육청, 경기도교육청에서 장학사로, 효자중학교에서 교장으로, 경기도의정부교육지원청, 경기도안양과천교육지청 교수학습국장으로 학생을 가르쳐 왔음. 현재는 경기도포천교육지원청 교육장으로 "아이들을 중심으로 교육가족 모두가 행복한 교육" 을 펼치기 위하여 사랑과 정성을 다하고 있음.
– 1996년 『앞선문학』 시부문에 신인상 당선하여 등단함
– 2013년 시집 『가뭄이 길었다』를 상재함
– 2017년부터 의정부문협에서 여러 문인들과 더불어 문학 활동을 하고 있음

나는 요

장르 : 시

느닷없이 쏟아지는 빗줄기를 피해
어느 집 처마 밑에 잠시 깃들었다가
그의 거푸집으로 떨어졌다

습관처럼 그분은 그렇게 나를 빚으셨다

그래서 그래서 뒤척이는 잠은
자주 빗소리를 따라 갔다
거기에는 내가 없고
허옇게 찌그러진 배고픈 달이
얼굴을 가리고 쫓아 다녔다

실적 없는 나의 발은 도망을 쳤고
어디에도 기여한 부분이 없는 손은
허우적거렸다
타야 하는 버스는 막 출발을 하고
엘리베이터는 꼭 내 앞에서 문이
닫히는 걸까

나만의 확률이라서
청원이라고는 없고
개선의 여지가 보이지 않는
이 생은 그러나
빗방울 속에 들어 있다
방울 한 개가 온전히
집 한 채이며
우주인
나는 물의 짐승이다
비린내가 난다

이도영

한국문인협회 회원
한국작가회의 회원
시집 '그 수락산 "
한국어 교사
독거노인자살방지 활동

마지막 김치

장르 : 수필

유정숙

2006년 월간《문예사조》수필 등단
한국문인협회 의정부지부 부지부장
한국문인협회 의정부지부 산문분과장 역임
성폭력 예방강사
독서논술지도사
의정부예총 공로상

엄마를 모시고 병원에 갔습니다. 진료를 기다리는데 어떤 분이 내게 엄마의 나이를 물어 봅니다. 87세라고 하니 젊어 보이신다며 좀 놀라더군요. 그 분도 어머니를 모시고 왔더군요. 그 분이 어머니와 함께 사냐고 묻길래 아버지 돌아가시고 3년 째 혼자 사신다고 말해 주었죠. 그랬더니 그럼 반찬을 해다 드리냐고 물었어요. "아니요, 엄마가 가끔 해주시는데요"라고 대답하다가 깜짝 놀랐네요. 지금까지 나는 무슨 짓을 한 걸까요? 엄마가 해주시는 반찬을 별 생각 없이 받았다는 사실과 그게 정말 말도 안 되는 일이라는 사실을 동시에 깨닫게 되었네요.

진료가 끝나면 엄마 집에 들러 김치를 가져가야 합니다. 엄마는 며칠 전 싱싱한 열무를 보고 그냥 지나치지 못하셨지요. 엄마가 싱싱한 배추나 무를 보는 순간, 다시는 김치를 담지 않겠다는 다짐 따위는 기억의 저편으로 사라집니다. 엄마가 김치를 담그는 과정은 녹록치 않습니다. 다듬다 쉬고, 씻다가 쉬고, 버무리다 쉬고를 반복하며 김치를 만듭니다. 어렵게 만들어진 김치가 적당한 때에 우리 집 냉장고로 옮겨져야 엄마의 걱정은 끝이 납니다. 제발 그만 담그라고 해도 엄마는 얼마나 더 담글 수 있겠냐고, 앞으로 하고 싶어도 못할 텐데 기운 있을 때 한 번이라도 더 담아준다고 고집을 부립니다.

진료가 끝났습니다. 6개월 후로 예약을 잡고 엄마 집으로 왔습니다. 좋아하시는 칼국수를 만들려고 멸치와 다시마를 넣고 육수를 끓였습니다. 온갖 영양분을 육수에 내어 준 멸치가 퉁퉁 불었습니다. 은빛 비늘도 보이지 않고 형체도 온전치 않은 자태로 체에 누워있는 멸치가 엄마를 닮아 보입니다.

언젠가 텔레비전으로 멸치 떼를 보았지요. 은빛 비늘을 반짝이며 춤추듯 헤엄치는 모습이 장관이었어요. 어부들은 은빛으로 반짝이는 멸치 떼를 '멸꽃'이라고 부르더군요. 건어물상이나 집에서 흔히 보던 초라한 모습은 멸치의 참 모습이 아니었지요. 잠시 엄마의 은빛 날들은 언제였을까 생각해 봅니다. 알고 보면 멸치의 아름다운 춤은 포식자로부터 자신을 지키기 위한 생존전략이라지요. 빠른 몸놀림으로 포식자를 혼란스럽게 만들어 희생을 최소화하는 거지요. 멸치의 은빛 춤사위는 멸치 자신에게는 고단한 삶의 몸짓에 불과할지도 모릅니다. 그러고 보니 엄마의 은빛 날들도 멸치처럼 고단했었네요. 엄마에게 지워진 삶의 무게는 주부라는 직업 외에 다른 것들을 요구했지요. 엄마는 구멍가게를 하는 아버지의 동업자로 계주로 참 바쁘게도 움직였습니다.

엄마와 칼국수를 먹었습니다. 입이 짧은 엄마가 잘 드시네요. 멸치와 다시마의 맛이 잘 우러난 국물에 감자와 호박을 넣고 끓인 칼국수가 엄마의 입맛을 돌아오게 했나 봅니다. 어쩌면 엄마가 담근 열무김치 때문인지도 모릅니다. 이젠 정말 그만 담그라는 말에 엄마가 딱 한 번만 더 담글 거라며 웃습니다. '이게 마지막'이라는 엄마의 김치는 계속 공급될 것 같습니다. 녹록치 않은 과정을 거쳐 만들어지는 엄마의 김치를 언젠가는 마지막으로 먹게 되겠지요. 자식들을 위해 이미 은빛 비늘을 다 녹인 엄마는 조금 남은 힘조차 다 쓰고 싶나 봅니다. 고생하던 젊은 날보다 지금이 좋다는 엄마. 자식을 보는 게 가장 즐겁다는 엄마. 어쩌면 자식과 함께 하는 날이 엄마의 은빛날일지도 모릅니다. 엄마의 마음이 은빛으로 반짝이는 날들을 자꾸자꾸 만들어야겠습니다.

self-esteem(40cm x 40cm, Oil on canva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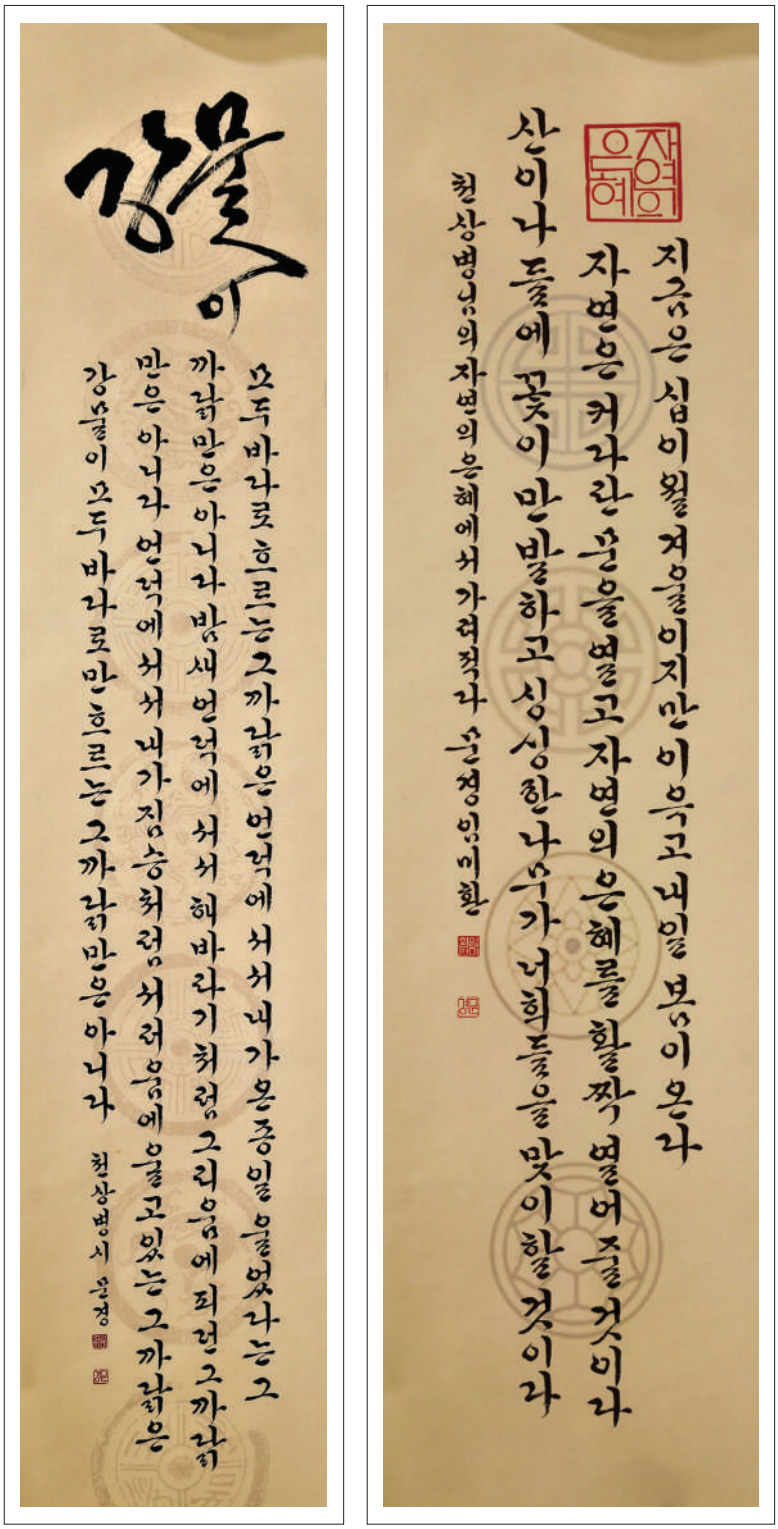
김 드보라

제1회 개인전 (의정부예술의전당)
김해인터씨티교류전
회룡문화제 서양화부문 우수상 수상
회룡문화제 서양화부문 특선 수상
봄날의정원전(리수겔러리)
현대미술초대전 (의정부예술의전당)
천상병 예술제 초대전

어떤 기다림 (20f, oil on canvas)

이승현

동덕여대 미술학부 회화과 졸업
2020 PAMAF2020 온라인 전시 / 의정부문화재단
2020 13회 경기의 사계 〈산따라 물따라 만나는 아름다운 경기〉/ 양평군립미술관
2019 개인전〈나를 담아줘〉 / 의정부예술의전당 2019.10.11–10.15
2019 회룡미술대전 대상 2019.10.27–10.30
2018 동덕여대회화과50주년기념〈목화전〉 /동덕아트갤러리 2018.5.23–6.4
2016~2019 프로포즈 정기전 /의정부예술의전당 등 다수
현) 미술협회회원



천상병시 강물 / 자연의은혜 (28×130 / 19×83cm, 화선지에 먹)

임미환

대한민국 미술대전 서예부문 초대작가
경기 미술서예대전 초대작가, 심사
세계서법 문화예술대전 초대작가, 심사
행주서예문인화대전 초대작가
전국회룡미술대전 초대작가, 심사
마루캘리그라피 힐링지도자
한국서학회 /갈물한글서회 /그림사랑회 회원
한국미술협회 회원 및 의정부지부 분과장
한글 · 한문 서예지도강사

가을이 지나간 자리 (90.9×65.1cm, oil on canvas)

전성희

2016~2019 의정부현대미술전,
1986 강릉대학교 미술학과 졸업, 2012~2019 프로포즈 정기전
2015 여성미술대전 입선, 2015 봄, 여름, 가을, 겨울 홍보관 그룹전
2015 의정부시퓨전관광홍보관 개관전시, 2014 길따라 마을따라
2013 의정부아트페스티벌,2013 회룡미술대전, 특선
2013 여성미술대전 입선, 서울미술관, 2012 용산미협회원전
현 : 한국미술협회 회원, 회룡미술대전 운영위원

여로

서경자

제1회 사진전 (자연–내 영혼을 담다)
의정부장애인체육회 기록홍보이사 역임
한국사진작가협회 정회원
한국사협 의정부지부 감사
현재 : 의정부사진클럽 회장

우 산

양윤정

한국사진작가 정회원
의정부지부 연구간사
전, 28대 풍경사진분과의원
전, 고양시 꽃사진공모전에서장려상외 다수
현, 심리상담센터 센터장

을왕리

정현진

한국사진작가협회 의정부지부 사업간사
웨딩팰리스 사진부 팀장
인사동 편집실 사진부

추색(秋色)

조한규

개인전2회실시 의정부 예술의전당
2010국제사진공모전 입선
2010(사)한국사진작가협회 본부주관 신인상수상
춘향제 전국촬영대회 금상 외 다수 수상
경기도 사진대전 수회 입선
경기도 포토페스티벌 수회 참가
2018평택포토페어 참가
국회의원 문희상 표창
(사)한국사진작가협회 의정부지부 사업간사.사무국장역임
현(사)한국사진작가협회 의정부지부 지부장(18대)

COVER STORY

정현욱 | 훈장님 오래오래 사세요

2020년 회룡전국사진공모전 금상

발행처_ 사)한국예총경기도연합회 의정부지회

발행인_ 김원기

주　소_ 경기도 의정부시 의정로80번길 18

전　화_ 031)850-5751 / 031)837-9000

팩　스_ 031)837-9011

이메일_ yechong477@hanmail.net

편집위원장_ 양효숙

편집위원_ 이병예, 이미숙, 임응섭, 조한규,
유준식, 박영길, 이경윤, 김현주

기획_ 사무국

인쇄_ 예원그라픽

※ 이 책은 의정부시에서 지원받아 제작되었습니다.

※ 이 책의 저작권은 의정부예총에 있습니다.
의정부예총과 출판사의 허락없이 내용의 일부를 인용하거나 발췌하는 것을 금합니다.